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유권자가 클린턴과 샌더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유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점진적 월스트리트의 규제 강화
(약점) 월가 선거자금 수수, 결코 개혁 못해

버니 샌더스
자본권력의 자금없이 풀뿌리 조직
정부주도 단일 건강보험, 무료 공립대학
(약점)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계획 없어



2015년 10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첫번째 대선 경선 토론회 모습 (사진=뉴욕타임즈 동영상 방송 캡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올해 11월 8일 미국엔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한다. 그전 6월까지 민주당 및 공화당은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그 시작이 아이오와 코커스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뒤를 잇는다. 아이오와 3백만, 뉴햄프셔 1백3십만 정도의 작은 주이지만 미연론 대선보도의 50%이상의 집중조명을 받는다. 그래서 미 대선의 풍향계라고도 한다. 미국전체인구 3억 2천만명의 1%에 불과한 곳에서 대선 후보의 윤곽을 만든다. 올해 대선에는 의외의 인물, 즉 아웃사이드

들의 활약이 거세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 거침없는 막말을 퍼붓는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복음주의 극보수 크루즈. 이들은 모두 워싱턴 정치인들의 타락이 미국민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유권자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이들의 인기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던 트럼프는 아이오와를 거치며 거품이 조금 꺼졌다. 복음주의 백인 유권자층을 집중공략하며 99개 모든 아이오와 카운티를 직접 돌았던 크루즈가 상승

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에 바짝 붙어 3위를 차지한 마크 루비오를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이 힐러리를 밀고 있다면 공화당 지도부가 밀고 있는 후보가 루비오다. 그는 고향력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히스패닉 표심도 바라볼 수 있다. 트럼프와 크루즈에 비해 비교적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힐러리는 공들인 아이오와에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다. 0.04%차이로 근소하다. 4년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비행기 대신 차로 아이오와에 입성했다. 최강의 선거 참모 >>8면으로 계속

뉴햄프셔 주지사 "한인의 날" 선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기 해산(Margaret W. Hassan) 뉴햄프셔 주지사가 올해 1월 23일을 "한인의 날"로 선포했다



뉴햄프셔 주지사 매기 해산(Margaret W. Hassan) 뉴햄프셔 주지사는 2003년부터 뉴햄프셔한인회가 주최하는 한인들의 '신년하례식' 날을 기하여 주정부 관계자 및 한인대표와 함께 주정부 청사에서 한인의 날을 선포하는 기념식을 갖고 이날을 "한인의 날"로 선포하고 있다. 또한 한인동포들도 신년하례식에 모여서 함께 한인의 날을 축하해 왔다. 이에 따라 매기 해산 주지사는, 지난 1월 23일로 예정되었던 뉴햄프셔한인회의 신년하례식을 기하여 "한인의 날"로 선포하였다. 이 행사는 폭설이 예상되었던 관계로 2월 6일로 연기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업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sang.com



2016년 비수기 출발 특가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890**
ONLY 1 STOP
(대한항공 뉴욕 경유)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866.619.4223(Toll Free)/617.424.8956

*\$890는 대한항공 요금입니다.
해당하는 항공권은 마일리지 70% 적립가능합니다.
출발일자는 2016년 5월 10일 (화)까지로 제한되며,
발권기한은 2월 25일 (목)까지입니다. 여행일정, 실시간 예약상황 등에 따라 항공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함인항공권 전문
IA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g H.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a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665.1587
juno@sonjasalami.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20대 총선 재외국민 유권자 마감 13일

편리한 인터넷 등록으로 유권자 등록 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는 4월 13일 한국에서 열리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2월 13일 토요일에 마감된다.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 유학생, 지상사직원, 복수국적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등록만 하면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은 13일까지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재외국민 선거는 기존과 달리 인터넷 등록 (<http://ova.nec.go.kr/cmn/main.do>)

이 가능하므로 굳이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다. 또한 올해 투표권을 행사하면 기존 유권자 명단이 활용되는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추후에 계속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26일 현재 전체 재외국민 가운데 유권자로 등록된 인원이 이날 현재 10만 4천1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외 선거인 추정치인 197만 8천197명의 5.27%로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동기간 등록률이 2.7%에서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hsb@bostonkorea.com



한인의 날 선포를 알리는 해산 주지사의 공식서한과 선포식 후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과 함께한 매기 해산 뉴햄프셔 주지사

한인 이민 100주년이 되는 해인 지난 2003년부터 시작

▶▶1면에 이어서
됐다.

매기 해산 주지사는 한인의날 선포 기념식에서 한인들의 개척자 정신을 치하하고 “한인 동포들이 고 유문화와 바람직한 관습을 유지하고, 주류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아름다운 풍습을 나누고 있으며, 한인들의 고유한 전통이 미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뉴햄프셔 주지사가 “한인의 날

”을 선포하게 된 것은 박선우 전 뉴햄프셔 한인회장의 노력으로 시작됐다. 2003년 이민 백주년을 맞이하여 박 전회장은 당시 크레이그 벤슨 주지사에게 이를 요청해 뉴햄프셔 한인의 날을 만들게 됐다.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포츠머스지역에서 30년 이상 거주하고, 뉴햄프셔 대학(UNH)에서 20년 이상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박선우 전 한인회장의 뉴햄프셔 및

인근 주의 정, 관계 인사들과 폭넓고 끈끈한 인맥이 벤슨 주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스톤 한인회는 최근 김경원 회장의 주도로 보스톤 시정부로부터 “한국의 날”을 제정해 보스톤 시청사에 한국 국기가 걸리도록 하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보스톤 아시안 부동산협회 이취임식 가져

관련업계 300여명 참가, 미주 내 아시아인 부동산 무료 교육 밝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아시안 부동산업 관련 전문직들의 모임인 미국아시안부동산협회(이하 AREAA) 보스톤 지부가 지난 1월 20일 수요일 제 4차 연례 갤러리를 퀸지소재 그레나잇링크스골프 클럽에서 가졌다.

이번 갈라에는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를 포함하여 관련업계의 귀빈들과 회원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2016년 새 운영진으로의 이취임식을 겸한 이번 갈라에서는 작년도 AREAA 부회장이었던 디 리(Dick Lee)씨가 회장으로, 한국계 도널드 최(Donald Choi, 한국명 최동혁)씨가 부회장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회장으로 취임한 디 리씨는 취임 연설에서 주택을 소유하기 원하는 아시아인들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협회와 멤버들의 수익을 증진하는 것을 올해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과의 스폰서십을 유지하고, 부동산 판매 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세분화된 교육 시스템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임식 이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디 리씨는 5~6년 안에 업계에서 넘버원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부동산 산업은 지각 변동이 큰 사업이지만 현재의 경쟁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내 아시아 그룹은 다른 민족보다 저축을 많이 하는 성향이 강하고 신용도도 높기 때문에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붐이 온다면 아시아인들에게 가장 큰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장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회장으로 취임한 한국계 도널드 최씨는 보스톤 코리아를 비롯한 한국인 커뮤니티와 맺어온 신뢰관계를 활용하여 한국인 커뮤니티를 위해 정기적인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인이나 한국에서 미주사회에 새롭게 정착하는 이민자들이 겪게 될 문제들을 위해 무료 교육을 제공하여 미주 사회에서의 아시아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itshunne@bostonkorea.com



AREAA의 2016년도 디 리 회장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도 귀빈으로 초대되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 참여한 귀빈과 멤버들 앞에서 2016년 새 운영진 전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디 리 회장(왼쪽에서 첫번째)과 도널드 최(왼쪽에서 두번째)부회장이 신임 간부로 선출되었다



식후 행사로 필리핀 청소년들이 필리핀 전통 무용을 공연하고 있다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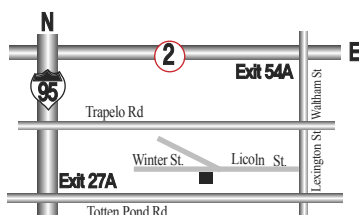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ng 2016 Schedule

Class	Time
SAT II MATH I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9:00 AM - 11:00 AM
SAT II / AP Chemistry	Start 3/14/16 - 5/28/16 Saturdays 11:30 AM - 1:30 PM
SAT II / AP Biology	Start 3/14/16 - 5/28/16 Saturdays 2:00 PM - 4:00 PM
SAT II MATH 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4:30 PM - 6:30 PM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씨티은행 통한 송금 보스턴에서 이용하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씨티뱅크의 보스턴 철수 (1월 19일자 관련기사 : 씨티뱅크의 철수 몰랐던 일부 학생들 망연자실, 2월 1일)이후에도 한국에서 보스턴으로의 최고의 송금방법은 역시 씨티은행 송금이였다.

지난호 기사에서는 씨티뱅크 철수 사실 중심의 보도로, 씨티뱅크로 받은 송금을 보스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다. 이번 호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씨티뱅크 송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한국씨티은행 해외 송금 수수료〉

전송 수수료	\$1
네트워크 수수료 (변화기준)	전체 송금액의 0.2%
미국 내 수수료	없음 (씨티뱅크/세븐일레븐) 또는 2천원~\$0.5-\$5 (사설 ATM 이용 시)
수수료 합계 (1000불 기준/ 환율 1200원 기준)	3,200원

앞선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씨티은행의 외화 해외 송금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국씨티은행에서 미국씨티뱅크로 1000불을 송금하여 미국에서 수령할 시 수수료는 3,200원 (환율 1200원 적용)이 부과된다.

〈사용방법〉

한국 씨티은행 → 미국 씨티뱅크	→ 1. 페이팔을 이용하여 미국 내 타행 계좌 송금
	→ 2. Cashback을 이용하여 소액 현금 취득
	→ 3. 세븐일레븐 ATM 이용

미국 씨티뱅크로 송금 받은 돈은 어떻게 사용할까?

1. 페이팔을 이용한 계좌 이체

실제로 계좌이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페이팔 계정을 두

개로 가입하여 양쪽 은행 계좌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미국인들도 많다. 주의해야 할 점은 페이팔 계정을 데빗카드(Debit Card)가 아닌 은행 계좌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계좌로 연결된 페이팔 미국 내 송금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데빗 카드로 연결한 뒤 송금 할 경우 최소 3.4% 이상의 수수료가 인출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캐시백 서비스 이용 - ATM을 이용한 소액 인출분 저축

ATM이 없는 것은 현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사설 ATM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현금카드와 미국의 데빗카드 양쪽에서 높은 수수료를 요구받는다. 이 경우에는 사우스, 월마트와 같은 미국 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미국으로 처음 온 유학생들에게 생소할 법한 캐시백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포인트 적립이 아닌, 매장에서 물건을 계산할 때 물건과 함께 현금을 데빗카드로 구매하는 개념이다. 캐시를 이용한 계산과 무인계산대 양쪽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소액의 현찰이 필요한 경우 ATM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현찰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꾸준히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여 목돈을 모아두는 편이 좋겠다.

3. 세븐일레븐 ATM 이용

세븐일레븐에 씨티뱅크의 ATM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씨티뱅크의 ATM과 동일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씨티뱅크와의 협약으로 세븐일레븐에서의 씨티뱅크 수수료가 무료로 적용되었고, 한국씨티은행 측에서도 미국 내 세븐일레븐의 ATM기는 씨티은행 ATM기와 동일한 송



금 수수료로 계산된다고 공지하였다.

주의해야 할 점

씨티뱅크 국제 현금카드를 이용한 외화 송금은 많은 유학생들에게 인기를 받아왔다. 타행 송금 대비 1/5 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수수료(1천달러 미만 기준)는 씨티뱅크가 보스턴 지역에서 철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씨티뱅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매력이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환율은 타은행 대비 높은 환율이 적용될 수 있다. 수수료가 없는 대신 씨티은행 기준환율이 아닌 로이더에서 제공하는 환율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행에 비해 환율이 비쌀 가능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타행이 송금액 구간별로 수수료를 받는 것과 달리 씨티은행은 전체 송금액의 0.2%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는 소액송금에 있어서는 타행에 비해 월등한 장점이지만, 고액 송금에 있어서는 타행의 송금 수수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액 송금의 경우라면 씨티은행 이용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itshunne@bostonkorea.com

	한국 씨티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10만원 이체	약 3천2백원	3천8천원	3천4천5백원	3천8천원
100만원 이체	약 2만5천원	2만8천원	2만7천5백원	2만8천원
200만원 초과	약 4만9천원	3만3천원	3만7천5백원	3만3천원

(한국 씨티은행 수수료와 송금률 기준 송금 기준)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경관장 제품은 경관장인 취급하는 '보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3420 (180g X 2개)

FREE GIFT
매니저배상
2명 증정
7월 한정

청경 뉴질랜드 녹용과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만남

용솟음치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하루 2번, 습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거북회복 ✓양압과
✓면역력증진 ✓혈액순환 개선
✓장미 인양을 예방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전화주문 서비스
보통우편 배송 헤드필입니다.
781-238-0303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8

보스톤 정관장 보랜드스토어

학자금 보조(FAFSA) 신청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2015 세금보고 서두른 후 신청고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지역의 대학들 연방 정부 학자금보조(FAFSA, 이하 펍사) 신청 마감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재정정보를 고려하는 가정에서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대학 진학학생들이 재정정보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펍사 신청은 빠를수록 재정정보 가능성을 높이고 그 금액도 많다. 따라서 재정정보를 고려한다면 결코 늦출 이유가 없다.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펍사 신청을 도와온 에이저 리 씨는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세금 보고를 서둘러 하고 2015년 세금보고와 함께 신청”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펍사의 신청 마감은 5월이지만 선착순으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2월 말이 넘어가면 보조금액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2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펍사란 펠 그란트 무상 보조 (Pell Grants), 스태포드 융자(Stafford Loans), 퍼킨스 융자 (Perkins

Loans), 근로 장학금(work-study)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신청 양식으로서 교육부에서 제공하며 신청비는 없다. 펍사는 영주권자 이상인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다.

많은 주립 대학은 학생들이 학교의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 펍사를 신청하는 것을 우선 조건으로 삼고 있다. 상당수 사립 학교에서도 학교 고유의 신청 양식과 CSS(College Service Scholarship) 프로파일 외에 펍사는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학자금 보조를 원하는 학생들은 매년 펍사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스톤의 많은 학교들은 학자금 보조 신청 마감일이 2월 15일로 빠르다. 보스톤 대학과 노스이스턴 대학, MIT의 경우 2월 15일까지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지어는 마감일이 1월 말인 학교도 있다고 하니 사전에 지원하는 학교의 재정정보 관련 웹사이트를



연방 정부의 학자금 보조(FAFSA)신청은 빠를수록 재정정보 가능성을 높이고 그 금액도 많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권장한다.

지원하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재정정보 패키지에는 학자금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서와 각종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자료로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연방정부 세금보고 양식(1040 Form)이나 W-2 양식, 은행 명세서, 증권 혹은 채권에 대한 기록 등이 있다.

펍사 신청시 도움을 원하는 한인들은 언제든지 오는 2월 8일부터 에이저 리(781-591-2722)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에이저 리씨는 무료로 펍사 신청을 돕는다. 펍사 신청 도움을 원하는 한인들은 에이저 리씨에게 전화하기 전 반드시 연방학생보조 아이디(FSA ID)를 신청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FSA ID는 사회보장국(SSA)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펍사 신청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는 이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2016년 지역회장단 및 임원 연석회의가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34회 학술대회 개최지인 콜로라도 덴버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2016년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지역 회장단 및 임원 연석회의

한순용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회장 대표로 참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2016년 지역회장단 및 임원 연석회의가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34회 학술대회 개최지인 콜로라도 덴버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올해 학술대회 및 2016년 상반기에 진행될 여러 사업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이번 모임에는 뉴잉글랜드 (NAKS-NE) 지역협의회를 대표해서는 한순용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롭게 지역회장으로 선출된 박종권 동북부 지역회장, 윤현주 중서부 지역회장, 이미숙 서북미 지역회장, 임지현 남서부 지역회장 등이 소개됐고 재임된 선우인호 동남부 지역회장과 유미순 콜로라도 지역회장에 대한 축하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장동구 이사장의 이사회 사업 보고, 2016년 사업 계획과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가 이어졌고 올해 학

술대회가 개최될 장소인 르네상스 덴버 호텔을 돌아보며 행사진행에 관한 설명시간도 가졌다. 저녁 식사 후 협의회 각 지역협의회 발전에 대한 토론과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비전을 나누기도 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정부지원에 대한 솔직한 생각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는 본국 재외동포재단 김봉섭 교육지원부 부장이 참석해 재단 사업을 소개하고 한국학교협의회 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밀알 한국학교 설날 문화와 전통을 배우는 민속 잔치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밀알한국학교는 2월 7일 일요일 한국의 설날 문화와 전통을 배우는 설날 잔치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 경에 시작하는 이 행사에서는 세배하기,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놀이, 공기놀이, 투호놀이 등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에게는 솜사탕과 삼플도

제공한다. 첼스포드 소재 밀알 한국학교는 2002년 밀알한인교회 안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봄 학기는 2월 21일 시작되며 매 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 3교시 수업을 진행한다. 밀알 한국학교 김현주 교장은 “우

리 학교는 학생 대비 교사의 수가 많아 소그룹 교육이 이루어지며, 한국어 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와 활동, 실습 교육을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와 전통을 배우게 된다.” 고 말했다. 등록을 원하는 학부모는 김현주 교장(678-516-4974, hkimpw@yahoo.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세배방과 다채로운 민속놀이로 설날잔치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튼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다채로운 설날잔치를 개최했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월 설날을 즈음하여 연례 민속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세배방은 물론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팽이놀이, 팔씨름, 박깨기놀이, 공기놀이, 활쏘기 등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민속놀이들을 실제로 체험케 했다.

학생들은 예쁜 설빔으로 차려입고 민속놀이방과 세배방을 방문하며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놀이문화를 즐겼다. 중고급과정에서는 인절미 만들어 보기와 다식 만들기, 한복만들기 행사 등을 통해 학생들과 부모들이 한국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새해 첫 인사를 제대로 드리는 세배 예절을 가르치는 세배방에서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남녀 세배법을 각기 배운 후 학생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손을 모아 세배를 올렸다. 한 학부모는 “딸아이가 진지한 모습으로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두 손을 포개는 순서와 발을 내딛는 법, 앉고 일어서는 법 등을 차렷로 배

워가며 다소곳이 세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고 밝혔다.

남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은 “2세대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한국의 고유전통과 민속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 으로 이 설날잔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회에서 개최한 학부모 제기차기 대회에서는 이승훈 학부모와 김효정 학부모가 각각 남녀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고백린 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의 가정 및 학부모회에서 후원한 떡으로 점심을 먹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종강식 및 ‘부모님과 선생님께 세배드리기 행사’ 를 가진 후 3주 간의 겨울 방학에 들어갔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는 2월 27일에 2016년도 봄학기를 시작하며 신입생들은 따로 일정을 정해 모임을 갖고 반배정을 마치게 된다. 이 학교의 마감일은 2월 6일까지이며 과정별로 약간 명만 등록을 받는다. 홈페이지 (www.ksneusa.org) 또는 남일 교장 (508-523-5389, ksneusa@verizon.net)에게 연락하면 등록안내를 받을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활쏘기 등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민속놀이들을 실제로 체험케 했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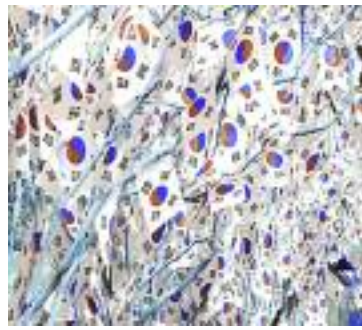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3.1절 강연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로드아일랜드 워릭소재 시 온감리교회에서 삼일절 기념행사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김화옥 박사를 초청해 (3.1 운동과 한민족 정서)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갖는다. 조봉섭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은

“행사후 간단한 다과도 준비되어 있다” 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조봉섭 회장 (401-874-5024; bcho@uri.edu) 일시: 2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시온감리교회 (35 Kilvert Street, Warwick, RI)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한인회 설날 떡국 잔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인회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요일 노스 앤도버 소재 국제선교회에서 떡국을 제공하는 설날떡국잔치를 개최한다. 보스톤한인회 김경원 회장은 한인회보 지면을 통해 “떡국잔치는 매년

효도잔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경노행사의 틀을 깨고 모든 한인들이 동참하는 한인 전체의 행사로 진행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김회장은 “한인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한인회” 를 만들기 위해 설날 떡국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가

족, 미국 친구들도 모두 초대해서 떡국을 즐기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일시: 13일 토요일 오전 11-오후 3시 장소: 국제선 교회 (53 Peters Street, N. Andover, MA)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2016년 제3차 정기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는 2월 13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마운트 라파엣(Mt. Lafayette)으로 3차 정기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의 A조 Old Bridle Path - Greenleaf Tr 거리는 왕복 8마일이고 예상 산행 시간은 6시간이며, B조 Old Bridle Path - Greenleaf Hut 거리는 왕복 5.8 마일이며 예상 산행 시간은 약 4시간 30 분이다. 마운트 라파엣 (Mt Lafayette)의 높이는 5260 ft, 상승고도(Elevation Gain)는 3,500 ft이며 난이도는 보통(중급) 정도이다. 준비물은 배낭과 방풍의, 아이젠(Microspikes), 우의, 장갑, 털모자, 스틱, 식수, 간편 중식이며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집결지는 올스틴 공영주차장(오전 6시 15분)과 93번 고속도로 2번출구 Park&Ride (오전 7시)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산행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산행신청 마감날은 오는 2월 11일 목요일 오후 6시다. 기타 문의사항은 (617) 780-6521로 할 수 있으며 산행에 관한 자세한 정



보는 보스톤산악회 카페 웹사이트 (cafe.daum.net/bostonmountaineer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행일: 2016년 2월 13일 토요일 집결지: 올스틴 공영주차장 오전 6시15분 Park&Ride, Exit2 of RT93 오전 7시 bostonkorean@hotmail.com

새생활센터 무료 건강검진 제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대표 송연호)가 2월 13일 토요일 무료 건강검진 진료를 실시한다. 진료 서비스는 매사추세츠 주민 뿐 아니라 방문자에게도 제공되며 무료 내과 진료와 치과 검진 및 건강 상담이 포함된다. 내과는 처방전을 무료로 발행하며 치과는 검사 및 예방상담을 제공한다. 환자들의 진찰 순서는 도착하는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뇨병 검사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날 아침식사를 거르고 오면 보다 정확한 혈액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한 건강 상담을 위해

BMI(Body Mass Index)와 체지방 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무료 독감 예방 접종(Flu Shot)은 오는 14일부터 한달동안 매주 오후 1시 ~ 2시까지 받을 수 있다. 진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스톤 새생활센터 송연호 대표(317-374-4786 혹은 781-279-3270)에게 하면 된다. 무료진료 안내 일시: 2015년 2월 13일 토요일 오후 2-4시 장소: Boston Korean SDA Church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산악회 2016 신년회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는 1월 30일 렉싱턴 소재 그레이스 채플에서 신년회를 가졌다. 3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이날 신년회에서 현정원 회장과 김수환 부회장이 인사말과 축사를 했고 회원 전원이 각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악회 회원 신영 씨는 “사람과 사람, 관계와 관계 사이에 산이라는 매개체가 있어 더욱 넉넉하고 훈훈해진다” 며 “바쁜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에서 산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소통의 장” 이 바로 산악회라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2014년에 개최되었던 보스톤 산악회 신년회 모습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버니 샌더스의 매력적인 메시지로 인해 2016년 민주당 경선은 팽팽한 경합의 장으로 돌변

▶▶1면에 이어서

와 선거조직을 투입해 가가호호 두드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 결과로 다행히 승리라는 타이틀을 쥐었다. 그러나 실제적 승리는 샌더스가 차지했다는 지적도 있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두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대세론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불과 6개월 전만해도, 점진적인 진보의 상징인 클린턴과 급진적인 진보 샌더스의 대결은 쉽게 일방적인 승리가 예측됐었기 때문이다.

샌더스는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었다. 힐러리 여왕 즉위식 정도로 여겨지던 2016년 민주당 경선은 팽팽한 경합의 장으로 변했다. 버니 샌더스의 메시지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전략적으로 힐러리를 선택하려던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표현했다. 힐러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후계자이며, 샌더스는 오바마 후보의 후계자를 표방한다. 2008년을 돌이켜 보면 오바마는 진보적인 후보였다. 그의 구호도 변화(Change)였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후 그는 주장했던 변화를 쉽게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바마는 월스트리트 출신의 재무장관을 임명시켰고 자동차 업계와 월스트리트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들을 구제(bail out)했다. 그럼에도 보수층은 부의 집중 해소와 분배를 추구하는 오바마를 '사회주의

자' 라고 불렀다.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키는데 공화당 측에서 단 1표도 획득하지 못했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를 폐쇄할 정도로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다. 월스트리트 규제법, 불황탈출 및 경제 성장 등 절반의 성취만 거머쥐었을 뿐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던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지키며 더욱 보강한다. 비록 학자금에 무료로 하지 않지만 장학금이나 그랜트를 확대한다. 한 번에 한걸음씩 개혁해 나가는 것이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란 것이다. 클린턴은 너무 거대한 공약들은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믿는다.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론상으로 샌더스의 주장은 정말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번지르르 하지만 현실 세상에서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주장에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고 평가절하 한다.

레드 콤플렉스가 남아 있는 미국사



회에서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라 지칭하는 버니 샌더스는 정치적 혁명을 추구한다. 그의 혁명은 정부 주도의 단일 의료보험체계, 무료 공립대학교육, 월스트리트 거대은행 분리, 유급 출산 휴가 보장, 부자 증세, 불법체류자의 시민권 획득 보장 등을 이뤄내는 것이다. 그는 또 자본권력에 정치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슈퍼팩(Superpac)을 폐지하고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런 정책들에 대해 회의적이다. 워싱턴 정가의 사정을 모르거나 순진한 주장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진보경제학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만은 대표적인 샌더스 회의론자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깨달은 것은 개혁의 언어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샌더스는 부가 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말한다. 이것만 없으면 정치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으로 워싱턴을 장악한 보수 지배계층은 결코 돈만으로 장악하지 않았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계층을 충동질해 더욱 보수의 결집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게 크루그만의 주장이다.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 장관은 클린턴이 2008년이나 올해나 변함없이 변화에 대해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변화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중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게 그것이다. 어떤 후보도 자본권력의 지원을 받는 한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거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정치인만이 개혁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그의 입장에서 자본 권력으로부터 지원받는 힐러리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버니 샌더스는 거대자본과 정치 권력과의 결탁을 끊어 내고 공화당 근로 계층 표를 흡수할 수 있다면 바로 정치혁명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유권자들의 교육과 조직 그리고 새로운 유권자들의 결집만이 현재의 워싱턴 권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결코 근로계층의 이해를 명확하게 대변하고 있지 않으며 자본 권력과 결탁해 있다고 지적한다.

74세의 샌더스는 평생 일관된 정치적 신념을 지켜왔다. 그는 슈퍼팩을

통한 대선자금모금을 거부하고 개인당 평균 27불 정도의 인터넷 기부금 바탕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했다. 그는 1980년에 벌링턴 시장, 1990년대에는 하원의원 2007년에는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샌더스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하는 난관이 많다. 물론 여론조사상으로 뉴햄프셔에서는 우세하지만 흑인유권자가 많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힘들다. 샌더스는 젊은층과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반드시 소수민족에까지 넓혀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상당수 미국인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부자증세, 대학학비 무료, 거대은행 분리 등을 공화당의 회를 뚫고 실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점진적인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힐러리의 접근이 편안하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의 주장을 이상주의자의 공허한 약속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신자본주의의 한계가 보이고 부의 불균형이 독버섯처럼 자라는 지금 버니의 주장이 진정한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ditor@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Coltarn Memb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2016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은 일련의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로 치뤄진다. 이 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정당들이 오랜 시간동안을 통해 만들어온 경선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일부 주는 프라이머리를, 일부 주는 코커스를 일부는 두 개를 모두 사용기도 한다. 2016년 11월 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선은 1월 말부터 6월까지 각 주별로 시간차를 두고 치러진다.

이 같은 예비선거 경선은 장단점이 있다. 각 후보들은 전 지역에 걸쳐 선거전을 벌일 필요 없이 순서대로 경선지역에 유세를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일 먼저 경선이 진행되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의 경우 아주 적은 인구를 가진 주임에도 불구하고 경선절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 경선 마지막인 6월에 프라이머리를 진행하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가장 많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거의 미비해 정확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프라이머리는 주정부가 선거를 관리하지만 코커스의 경우 당에서 선거절차를 관리한다. 코커스는 선거장소가 아닌 정당이 만든 집회 등에 참가해서 대의원을 결정한다. 거의 대부분의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는 선정된 대의원들이 각각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후보에게만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의원 선정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후보자들에게 배당되거나 승리한 후보가 모든 대의원을 가지는 승자독식의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주 전당대회 후보를 선택하고 이들이 전국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프라이머리에서 자기소속 정당등록자만 투표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클로즈드 프라이머리라고 하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한다.

프라이머리 및 코커스 일정

- 2월 1일: 아이오와 코커스(양당)
- 2월 9일 :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양당)
- 2월 20일 : 네바다 민주당 코커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화당 프라이머리
- 2월 23일 : 네바다 공화당 코커스
- 2월 27일 :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프라이머리
- 3월 1일 : (슈퍼 투스데이): 미국 여러 개 주의 양당 프라이머리 및 코커스

아이오와 및 뉴햄프셔 코커스

아이오와 코커스는 대선 경선 후보들이 전당대회에서 자신에게 투표할 대의원을 획득하는 첫번째 이벤트다. 일반적으로 대선 당해 연도 1월말에 열린다. 아이오와에 이어 바로 첫번째로 열리는 프라이머리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다. 이는 뉴햄프셔 주법에 따라 지난 1920년부터 시행되어온 프라이머리다.

최근 대선에서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전체 대선 경선과정에서 약 50%에 달하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앞선 후보는 언론의 집중 조명으로 대선 캠프가 탄력을 받게 된다. 수많은 선거자금과 자원봉사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나머지 경선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아주 중요한 아이오와와 뉴햄프셔는 그동안 여론조사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자주 돌출된다. 아이오와는 인구가 3백10만에 불과하며 뉴햄프셔는 1백 33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구가 작은 주에는 캠페인은 좀더 개인적인 직접적인 선거가 가능하다. 즉 발로 뛰는 선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대선에서는 가장 많은 캔버스(Canvass: 과외된 성향을 바탕으로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집중 타겟으로 가가호호 방문해 후보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방법, 주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풀뿌리 조직이 강한 후보가 주로 실시한다. 대표적으로 과거 오바마가 이 방법을



사용했다.)가 일어난다. 따라서 자금이 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의 경우 가가호호 방문해 친밀한 선거활동을 하는 경우 의외의 결과를 내기도 했다.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크루즈 후보는 아이오와 99개 전 카운티를 돌며 선거운동을 벌인 유일한 후보였다.

대표적인 역전(upset)사례를 보자. 1972 민주당 경선에서 조지 맥거번은 다크 호스정도로만 여겨졌으나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기대이상으로 2위를 하고 결국 두 선거에서 1위를 기록했던 에드먼드 먼스키를 따라잡아 결국 민주당 후보가 됐다.

2008년 힐러리 클린턴은 아이오와에서 대승을 거둘것으로 예측됐지만 버락 오바마와 존 에드워드에 이어 3위로 쳐졌다. 그러나 힐러리는 뉴햄프셔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오바마를 제치고 뉴햄프셔에서 1위를 차지해 두 후보는 장기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결국 견고한 풀뿌리 조직을 가진 오바마가 힐러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화당 프라이머리는 당의 선두주자 후보가 승세를 굳히는 방화벽으로 간주된다. 민주당의 경우 아이오와와 뉴햄프셔가 주로 백인 유권자 민주당원 중심의 투표였다면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흑인 등 다

양한 소수민족의 유권자들을 본격적으로 테스트하는 프라이머리다.

특히 공화당의 경우는 당내 여러 계파들이 쟁쟁한 후보는 걸러내고 시간 낭비 없이 한 주요 후보에게 집중해 단합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화당 프라이머리의 의미다. 1980년대 프라이머리 발단 이후 한번의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사우스 캐롤라이나 승리후보는 결국 6월 전당대회 대선후보가 됐다. 지난 2012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뉴트 깅그리치가 승리했지만 이후 플로리다 등에서 미트 롬니에게 패배하는 등 후퇴를 거듭했고 결국 공화당 대선후보는 미트 롬니가 차지했다.

슈퍼 투스데이(Super Tuesday)

슈퍼 투스데이는 2월 또는 3월 상당수의 주가 프라이머리 선거를 치르는 날을 가리킨다. 슈퍼 투스데이에는 미국내 수많은 지역과 사회적 또는 민족적 다양한 그룹들에 걸쳐 프라이머리가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의 첫번째 전국적 당선가능성을 테스트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슈퍼 투스데이 경선중 가장 많은 곳에서 승리를 거둔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자리를 좀더 확실하게 확보하는 순간이다.

editor@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목통, 어깨통, 허리통, 목통, 손목통
-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불면증
-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부상
- 만성 관절염, 비만, 다이어트
-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심혈관 질환 예방, 당뇨, 고혈압
- 만성 질환, 만성 통증, 만성 스트레스
- 노인 재활치료, 노인 건강관리
- 기타 재활치료, 노인 건강관리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김동원치과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클린턴 · 샌더스... 4차례 토론회 추가 개최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국 민주당 양대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가 총 4차례의 토론회를 추가로 갖기로 합의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0.2%포인트(p)차로 아깝게 패배한 샌더스 후보는 그간 클린턴 측에 뉴욕 프라이머리 전 뉴욕에서 TV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뉴햄프셔 토론회를 불참한다고 압박했다.

3일 미 CNN에 따르면 두 후보가 추가 4차례 토론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는 10개로 늘었다. 이는 4일 뉴햄프셔 대학교에서 열리는 TV토론회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이어 3월 중에는 미시간주 플린트, 4~5월에는 그 외 지역에서 열릴 계획이다. 5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4월 토론회가 열릴 지역에 대해 두 후보의 의견차는 좁

혀지지 않았다. 클린턴은 대선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펜실베이니아, 샌더스는 자신의 출신 지역인 뉴욕을 주장하고 있다.

샌더스는 그간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이번 대선 후보 토론회를 6개로 한정하고 모두 시청률이 낮은 주말에 일정을 잡은 점을 비판해왔다. 클린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한 샌더스는 TV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공약을 가능한 많이 알리는 게 필수적이다.

클린턴이 이번에 추가 토론회를 받아들인 데는 지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샌더스에게 턱밑까지 추격 당한 뒤 위기감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샌더스는 이번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MSNBC와 인터뷰에서 "난 언제나 더 많은 토론을 원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들(클린턴측)이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yjw@news1.kr



버니 샌더스 민주당 대선후보



샌더스, 아이오와 퀘거 하루만에 36억 후원금 확보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대선 풍향계'라고 불리는 아이오와주(州)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팽팽한 접전을 펼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정치후원금 모금에서도 웃음을 짓게 됐다.

2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샌더스 후보 선거캠프는 1일 밤 아이오와 코커스가 치러진 지 단 하루 만에 300만달러(약 36억5580만원)의 기부금을 확보했다.

마이클 브릭스 캠프 대변인은 이는 지금까지 들어온 하루 기부금 중에서는 최고액이었다고 말했다.

샌더스는 슈퍼팩(Super PAC)을 통해 대규모 기부금을 모금해 온 다른 대선 후보들과 달리 대부분의 정치후원금을 온라인 소액기부를 통해 확보해왔다. 이 중 1인당 최고 기부금 한도인 2700달러(약 330만원)를 기부한 사람도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브릭스는 설명했다.

브릭스는 특히 코커스의 대략적 결과가 나온 뒤 이뤄진 샌더스의 연설 직후 1시간 동안 새로운 기부자가 급증했으며 10명 중 4명은 이전에 기부한 적 없는 신규기부자라고 말했다.

샌더스 후보는 전날 1683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아이오와 코커스 최종개표 결과 49.6%의 득표율을 확보해 49.8% 득표율을 얻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0.2%p 격차로 바짝 추격하는 데 성공했다. 비록 승리는 클린턴에게 돌아갔지만 돋보인 것은 샌더스였다.

지난해 봄 민주당 대선후보로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 샌더스 후보는 지난 2분기 동안 클린턴 후보에 버금가는 기부금을 모금했다. 지난 1월 한달간 거둔 기부금만 2000만달러에 달하며 지난 24시간 동안 기부속도는 더욱 가속화됐다.

yeoulim@news1.kr

쌩쌩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안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안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MDC, CBS, FOX, NBC, OCN, etc.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루비오, 공화당 주류 지지 업고 최유력 후보로 부상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 대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 주 코커스에서 3위를 차지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공화당 주류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3일 AFP통신은 루비오 의원이 코커스 후 자신의 경쟁력을 확인시키면서 공화당 지도부의 지지를 결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의원은 전날 코커스에서 극우 강경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도널드 트럼프에 밀려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위인 트럼프와 단 1%p 차이 밖에 나지 않아 유력후보로서 입지를 재확인했다.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트럼프와 크루즈 의원을 누를 대항마를 찾고 있던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는 루비오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캐리 코빙턴 아이오와 대학교 정치학 교수도 AFP와 인터뷰에서 "루비오는 켈리 애쉬리 전 플로리다 주지사,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 모든 후보를 뛰어 넘는 후보"라며 "루비오가 트럼프와 크루즈에 대항할 후보를 찾던 지도부에 해답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단숨에 대세로 떠오른 루비오 의원은 오는 9일 치러지는 뉴햄프

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상승세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지지를 기반으로 아이오와에서 1위를 차지한 크루즈 의원은 뉴햄프셔에선 강한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 아이오와 승리를 재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햄프셔는 아이오와와 비교해 중도 성향이 강하고 종교에 초점을 맞춘 호소에는 덜 적응돼 있다.

크루즈 의원이 이날 뉴햄프셔 유세 이후 곧바로 오는 20일 프라이머리가 열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옮긴 것도 보수적 색채가 짙어 더 승리확률이 높은 이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루비오 의원은 이미 아이오와 코커스 직후 뉴햄프셔로 이동해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3일 뉴햄프셔 엑시터

타운홀 유세에서는 약 700명의 지지자들에게 "만약 제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공화당과 보수 전체를 결속시켜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일 아이오와 코커스부터 9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까지 8일을 "미국 정치사에서 위대한 8일"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루비오 의원이 뉴햄프셔에서 트럼프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면 트럼프 돌풍을 잠재우고, 당내 적자로서 강경 티파티 세력을 등에 업고 이는 크루즈 의원과 본격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들도 경선레이스가 진행될 수록 루비오 의원에 공화당 지도부의 전폭적 지지가 더해져 당내 지지발표와 후원금 모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는 등 대세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baebae@news1.kr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공화 허커비, 폴, 샌토럼 잇단 포기...최대수혜는 루비오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대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끝난 뒤 12명의 후보가 난립해 이전투구를 벌이던 공화당 경선전열이 빠르게 정리되는 추세다.

코커스 당일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경선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3일 랜드 폴 상원의원과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이 경선 중도포기를 선언했다.

당내 티파티 세력의 지지를 받아왔던 폴 후보는 "백악관 입성을 위한 대선주자로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오늘 나는 내가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겠다. 자유주의의 근거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폴 후보는 지난 1일 치러진 경선에서 4.5% 득표율로 공화당 내 5위를 기록했다.

샌토럼 후보는 "이번 레이스에서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경선 포기를 선언하는 한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23.1% 득표율로 유력후보로 급성장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샌토럼 후보는 "고통받는 미국인을 돕고 전통적 가족의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람국가를 이해하는 후보를 찾아 왔다. 그것이 우리가 마르코 루비오를 지지하기로 결심한 이유"라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샌토럼 후보는 2012년 당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미트 롬니를 서서히 몰아내며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이번 경선 레이스에서는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샌토럼

은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0% 득표율 11위라는 쓰디쓴 패배를 맛보아야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와 크루즈, 루비오가 20% 이상 득표율로 3파전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부시 전 주지사 대해서는 유권자에 자신의 매력을 증명해 보이거나 그러지 못할 바에는 레이스를 떠나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거세다.

부시 후보는 이번 코커스에서 2.8% 득표율을 얻어 경선을 중도포기한 폴에게도 뒤처졌다. 만약 부시가 경선을 포기하지 않고 오는 2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까지 선거운동을 지속한다면 공화당 내 실용주의적 유권자 사이에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화당 내 지도부 역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부시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퇴시 반사이익은 성향이 겹치는 루비오 후보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전망이다.

공화당 내에서는 루비오가 트럼프와 팽팽한 접전을 펼쳤던 아이오와에 이어 뉴햄프셔에서도 거침없는 행보를 선보인다면 공화당의 결속과 기반을 다질 최적의 대안 후보라는 입지를 확보하게 되리라는 믿음이 강하다.

공화당의 '버락 오바마'로 불리는 루비오는 아이오와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월가 후원금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배팅업체의 최종 지명 확률도 급등하고 있다.

yeoulim@news1.kr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글로벌수장**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미네아폴리스 New Star Realty의 대표로 일하며, 10년간 뉴스타 리얼티의 성공을 위해 근무하는 대표인(MBA)을 대표로 일한 BOSTON-CAMBRIDGE 지역 10년 이상 경험과 각 지역마다의 시장, 안정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실중심과 충성심을 100% 이상의 고객 서비스를 인정받으며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6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50-4996

가목의 정확,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orengrm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근처, 역, 한마루, 사출 실방, 침실과 베란다 1-2분 거리
 내년 8월까지 약정되어 계약되어 있음.
 현재 풀스런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BEDFORD 지역 단독주택

For Sale: \$599,000 3+ Beds, 2 Bath, 2238 sqft (Lot size: 1.3 acr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경관, 양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미 달러강세 경고등 잘 나가던 서비스업까지 '휘청'

(서울=뉴스1) 장안나 기자 = 제조업의 부진을 상쇄하며 미국 경기를 지탱해 오던 서비스업마저 달러강세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초부터 가속화된 위안화 약세에 이어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들의 추가 경기부양 재료까지 가세해 이 흐름이 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윌리엄 더들리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달러화 강세' 경고 발언은 이런 시점에 등장한 것이다.

더들리 총재는 이날 MNI와의 인터뷰에서 "달러화가 추가로 강해지면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상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달러는 주요 통화들은 물론이고 중국 등 이머징 통화들에 대해서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공개된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의 1월 서비스업지수는 53.5로 전달의 55.8에 비해 2.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4년 2월이후 약 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비슷한 시간에 발표된 금융정보 서비스업체 마켓의 1월 미국 서비스업 PMI도 53.2(확정치)로 전달 54.3보다 둔화했다. 2013년 10월이후 최저치다.

마켓의 크리스 윌리엄슨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시장의 불안 심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서비스업에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달러 강세도 예외가 아니다"며 "달러 강세는 제조업 경기를 둔화시키는 물론 관광 수요를 줄여 서비스업에도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작년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0.7%(전분기 대비, 연율)에 그쳤다. 달러화 강세가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 중 무역부문은 미국의 성장률을 0.5%포인트나 잡아먹었다.

달러강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더 광범위하다.

마켓이 지적했듯이 외국인 관광수요가 타격을 받았다. 식품업계에서도 달러 강세를 두고 불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ISM 조사에서 도매업체들은 주요 수출국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춰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기업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비스업은 그동안 미국의 고용팽창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ISM의 서비스업 고용지수는 56.3에서 52.1로 떨어져 일년만에 가장 부진했다.

미국에서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압도적이다. 서비스업으로까지 확산된 달러화 강세 피해가 고용둔화로 이어진다면 연준의 금리인상 행보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subway@news1.kr

유가8% 폭등, 달러 급락하며 원유시장 전인

(서울=뉴스1) 장안나 기자 = 국제유가가 미국 달러 약세와 맞물려 8%의 폭등세를 연출했다. 5개월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하면서 지난 이틀간 11%대의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달러 강세' 경고 발언이 상승의 기폭제였다. 그 여파로 달러 가치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유가를 견인했다.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으로 원유감산 공조 기대가 되살아난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유가가 치솟자 투기세력들이 서둘러 숏커버링(환매수)에 나서며 상승세가 증폭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 3월물은 전장 대비 2.40달러(8%) 상승한 배럴당 32.28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 급증 소식에 29.7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곧 다시 반등했다. 브렌트유 4월물도 영국ICE 선물시장에서 2.32달러(7.1%) 오른 35.04달러를 나타냈다. 한때 35.11달러로까지 솟구쳤다.

더들리 총재는 "달러화가 추가로 강해지면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상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달러 가치는 다수 통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1.62% 하락한 97.30에 거래되고 있다.

오만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비OPEC 회원국들 간 회담이 열린다면 러시아는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미국 주간 원유재고의 급증 악재는 시장의 긍정적 분위기에 묻혀 희석되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가 전주보다 780만배럴 늘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480만배럴 증가를 예상했었다.

subway@news1.kr

WHO "유럽도 지카 안전지대 아냐"...확산방지대책 촉구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중남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유럽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신속한 확산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AFP통신에 따르면 수잔나 자카르 WHO 유럽 담당 국장은 "유럽 각국은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매체인 모기를 통제하기 위해 조기에 통합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집트숲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지카 바이러스는 열대지역의 풍토병이지만 유럽에서도 산발적으로 발견된 바 있어 완벽히 낫은 질병이 아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이집트숲모기는 20세기 유럽에서 사라졌지만 최근 포르투갈 마데이라와 러시아 남부 일부, 조지아 등을 중심으로 다시 서식하기 시작했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이집트숲모기 분포지역이 확장되면서 때로는 좀더 북부지역인 네덜란드에서도 관측돼 우려가 가중된다.

ECDC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집트숲모기가 유럽에 들어올 경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생존하지 못할 기후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WHO는 겨울 동안 이집트숲모기가 번식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봄여름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상승할 경우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며 번식지 제거, 살충제 사용, 유충 박멸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이집트숲모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eoulim@news1.kr



지카 바이러스를 옮긴다고 알려진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yd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aloo.com

Kathy Lee
Cell: 781.354.1622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드립니다

미국 좋은 보스톤 앞대 아파트, 콘도, 주택 전문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Fax 617.969.7912
Kathy.Lee@NEMoves.com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에머슨 대학생 기숙사방 렌트하려다 징계 위기

겨울 방학 기간 동안 3명에게 기숙사 렌트 기숙사 방을 렌트할 수 없다는 교칙 위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커먼이 보이는 전망 좋은 싱글 베드룸을 보스톤을 찾는 여행객에게 단기대여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재되었다. 얼핏 보면 관광객에게 좋은 숙소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방이 에머슨 대학교 (Emerson College)의 기숙사라는데 있다.

에머슨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잭 위스는 학비와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단기 렌탈 웹사이트인 에어비앤비 (airbnb.com)에 기숙사방을 올렸다. 위스는 자신의 기숙사방이 보스톤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좋은 숙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위스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기숙사 방을 렌트한 행동 때문에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위스는 1월에 3명의 사람에게 기숙사 방을 렌트했다.

위스는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에머슨 대학이 보스톤 심장부에 위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숙소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맞물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그래서 약간의 돈을 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위스가 지내고 있는 기숙사는 12층 높이의 건물로 700명 이상의 에머슨 대학생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

위스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현재 학교

에서 징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에머슨 대학에 따르면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기숙사 방이나 침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에머슨 대학은 성명을 통해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숙사를 렌트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스는 “나는 아무도 위협하게 하지 않았고, 그런 행동을 보지도 못했다”면서도 “내가 학교 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학교 측의 (징계)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대학교 2학년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기숙사를 렌트한 것이 학교 측에 적발되었다



운전중 손사용 전화통화 금지법안 상원통과

하원에 이어 상원도 셀폰법안 가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운전자들은 조만간 운전중 핸드프리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통화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상원은 21일 운전중 셀폰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주지사가 이 법안에서 명할 경우 매사추세츠는 커넥티컷 뉴햄프셔 그리고 뉴욕을 포함한 12개 주의 운전중 셀폰 통화 금지에 입성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현재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행중인 운전중 문자 및 18세 이하 셀폰 사용금지법안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뉴튼 민주당 상원 의원인 신시아 크림 의원이 상정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핸드프리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셀폰통화시 \$100이 부과되며 2번째 발각시에는 \$250, 세번 이상은 \$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든

위반 운전자는 운전산만방지 교육도 받아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하원에서는 지난해 말 이와 유사한 법안에 대해 가결한 바 있다. 주지사 대변인은 “주지사는 이 같은 법안에 긍정적이며 곧 이 법안을 검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한편 렉싱턴 매사추세츠 상원 마이클 베렛 의원은 이번 법안을 집행하는 데 있어 경찰이 소수민족들과 빈곤층들의 단속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흑인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경찰의 단속에 자주 걸린다는 통계자료를 인용했다.

이날 상원은 첫번째 위반자가 핸드프리 도구를 구입했다는 증명을 보이면 벌금을 면제하는 수정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이를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hsb@bostonkorea.com



CHESTNUT HILL MALL NOW HIRING



CALL
1.877.486.4756
VISIT
uniqlo.com

직접 매장을 찾아 인터뷰를 신청해 주세요

Uniqlo The Mall at Chestnut Hill :
199 Boylston St. Newton MA 02467

새누리 공천관리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 황진하

내부인사 5명 발표, 남은 인원은 다 외부인사로 주말 확정

(서울=뉴스1) 차윤주,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한구의원을 확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위원장으로서는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지역 4선 이 의원이, 부위원장 겸 간사는 황진하 사무총장이 각각 선임됐다.

또한 공천관리위원으로 홍문표 사무1부총장,

박종희 사무2부총장, 김희선 클린공천지원단장이 5명으로 구성된 1차 인선안에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는 "공천작업에 빨리 착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 전체 명단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오늘부터 공천관리를 위한 실무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외 남은 위원들은 이번 주말 안에 확정해서 2차 발표를 하겠다. 남은 분들은 다 외부인사로 하게 된다"고 밝혔다.

chacha@news1.kr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민주 공천관리위원장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

(서울=뉴스1) 박태정, 박응진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공식 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홍창선(72) 전 카이스트 총장을 임명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은 밝혔다.

공천관리위원장은 다가오는 4·13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를 선정하는 공천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홍 전 총장은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응용역학 박사를 받고 1996년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홍 전 총장 임명 배경에 대해 "개혁적이며 올곧고 학계에서 두루 덕망을 쌓은 분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내 정치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ptj@news1.kr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경은)



617-981-1542

Uni Joo (주 윤희)



508-641-8924



WELLESLEY

....\$ 1,249,000



NEEDHAM

....\$ 739,000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FEB. 5TH - FEB. 11TH, 2016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and WeChat for special offer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43 MIDDLESEX TPKE., BURLINGTON, MA 01803

LET THE GAMES BEGIN! (KOREAN STYLE)

ROCK #SB50 WITH A TASTIER TWIST.

Burgers get bulgogui'd. Wings get soy & garlic. Guests get super impressed. Take your tailgate to the limit... and stop in today.

H마트와 함께 슈퍼볼을 응원해요! 응원을 하며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먹거리 준비의 시작은 H마트와 함께 하세요.



Bulgogi Slider / 불고기 슬라이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HARU HARU Med.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10.99** 

GWANGCHUN Roasted Green Tea Seasoned Laver 광천 녹차김 선물세트 Original/Parae - 0.71oz. x 10ea./box **\$9.99** 

DONGSUH Maxim Mocha Gold Coffee Mix 동서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100cnt/pkg. **\$12.99**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박스 box **\$24.99** 

Packed Garlic 팩 마늘 5crt/pkg. **\$1.49**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

SOONYEOWON Tofu 수녀원 콩두부 All Varieties/ 14 - 16oz. **\$0.99**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3.99**

Ginger 생강 lb. **\$1.2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eef Heel Meat 소 사태 lb. **\$7.99**

Sliced Pork Single Rib Belly for BBQ 바베크용 생삼겹살 lb. **\$7.99**

Beef Bones 냉동 시골 lb. **\$1.29**

Bonless Pork Loin for Cutlet 돈까스용 돼지고기 lb. **\$4.99**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양지 슬라이스 lb. **\$7.99**

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 lb. **\$1.4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 TONGBAY Premium Dried Seafood Gift Set 통통배 명품 권어물 선물세트 3.3 lbs./set **\$29.99** 

Cod Rod 냉동 대구알 lb. **\$3.49**

SUHYUP Alaska Pollock Fillet 수협 부침용 동태살 14.1oz./pkg. **\$3.99**

Abalone 냉동 전복 lb. **\$19.99**

Head-on Wild Jumbo White Shrimp for BBQ 자연산 소금구이용 흰 왕새우 9-12's lb. **\$9.99**

Beltfish 생갈치 lb. **\$4.99**

PULMUONE Nature's Delicious Non-fried Ramyun Noodle 풀무원 자연은 맛있다 생라면 All Varieties/ 3.6 - 3.7oz. x 4ea./pkg. **\$4.99**

SAONGWON Deep Fried Seaweed Roll 사용원 김말이 튀김 Original/Spicy/ 1.12 lbs. **\$4.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fl.oz. **\$14.99**

HAIORUE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해오름 소고기 양념 Bulgogi/Kalbi/ 2.11 lbs. **\$3.99**

Q1 Original Sweet Korean Pancake Mix 큐원 오리지널 찰호떡믹스 19.4oz. **\$3.99**

BEKSUL Frying/Pancake Mix 백설 튀김/부침가루 22 lbs. **2\$5**

HAIOREUM Dumpling 해오름 만두 Fried/Kimchi/Vegetable - 2.65 lbs. **\$4.99**

PALDO Rice Punch Gift Box 팔도 비락 식혜 선물박스 8fl.oz. x 12cans/box **\$6.99**

ESENCIA Grapeseed Oil 에센시아 포도씨유 34fl.oz. **\$4.99**

Marble Shoulder Massage Pack 한국산 고급 구슬 어깨 찜질팩 ~~\$16.99~~ **\$9.99**

Microfiber Indoor Slippers 겨울용 극세사 실내화 Gray/Ivory - Pair **\$3.49**

Tiger Electric Water Heater/Dispenser 타이거 전기포트 Tiger Electric Water Heater/Dispenser PUD-A30U/ 3L - ea. ~~\$169.99~~ **\$129.99**

www.HelloHome.com  **GRAND OPENING**

Your one-stop online shop for all your houseware needs!

hellohome.com 웹사이트에서 주방과 가정에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을 손쉽게 구입하세요~

만찬정치·진박투어 속 친박-비박 공천 힘겨루기 언제까지

최경환 '진박 도우미' 광폭행보 vs 김무성 '상향식 공천'...여론전 비화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이 연일 '한지붕 두가족'으로 분열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친박계가 결집하면, 여의도에서 비박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식이다.

2일 친박계와 비박계는 전국을 전장으로 '만찬정치'·'개소식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서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날 선 비판을 가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현재 친박계의 중심은 단연 최경환 의원이다. 최 의원은 여의도 입성 후 연일 만찬을 주재하며 소속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더니, 이제는 지역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순회하며 '진박 감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최 의원은 1일 윤상직 전 산자부 장관의 부산 기장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후 해운대 인근에서 만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장관,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장관 등 박근혜 정부 멤버와 함께 유재중(수영구), 김도읍(북강서울), 이현승(부산진울) 의원 등 부산 친박계 인사 11명이 참석했다. 최근 당적을 바꾼 조경태 의원(사하울)도 함께 했다.

최 의원이 자신의 영역인 대구·경북 지역(TK)에 이어 부산·경남(PK) 지역까지 범위를 넓히며 '진박투어'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최 의원은 2일에는 자신의 최측근인 강석진 전 거창군수의 경남 산청·거창·함양군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대구 서구) 개소식까지 찾으며 경상도 권역을 종횡무진했다.

이에 비박계는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하는 모양새다. 지난날 31일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 주선으로 열린 초재선 의원 만찬에서는 김 대표를 위시해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박대통령의 4대개혁 완수 및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서로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는 덕담도 오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친박계는 "세 걸집"이라며 맹비난했고, 비박계는 "당내에 김무성 대표계라는 것이 전혀 없다.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밤 그릇 같이 먹은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친박 김태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 의원 같은 평의원과 김 대표는 차원이 다르다. 대표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박계 만찬이 있었던 날 동시에 경남지역에서는 친박계 의원들 만찬이 진행돼, 도내에서도 친박·비박계가 갈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친박 유기준 의원과 함께 박대출(진주갑) 의원과 지역 예비후보인 강 전 거창군수, 박완수 전 창원시장, 염용수 전 밀양시장은 경남 창원에서 저녁을 함께 했고, 같은 시간 조해진(밀양창녕군), 신성범(산청함양거창군) 의원은 서울에서 김 대표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비박계 만찬 회동에는 맹비난을 쏟아내는 친박이지만 최 의원의 '진박투어'에 대해서는 "평의원(최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에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덕담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감싸고 있다.

반면, 비박 의원들은 "당 선거에도 움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친박계와 비박계간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관계가 지속되다 보니 의원들이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날 정가에는 흥분중 의원이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만찬 회동을 계획한다는 소문이 한동안 돌았지만 흥 의원은 "사실무근"이라 해명했다.

친박계와 비박계의 전국적인 세 걸집 여론전은 공천 전까지는 쉽게 끝나지 않을 모양새다. 과거 중앙당에서 진행되던 밀실공천과 달리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인해 예비후보의 지역 여

론조사 결과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최 의원이 지역을 넘나드는 광폭행보를 보이며 '진박 세몰이'에 나선 것이 상향식 공천 시행과 맞닿아 있다는 시각도 여기서 나온다. 친박 후보가 지역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20대 총선에서 '진실한 사람'을 보다 많이 배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따라서 당내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태 공천심사에 돌입할 경우, 계파간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끝을 알 수 없는 친박 대 비박의 만찬정치를 통한 비공식 여론전은 한동안 정가를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girin@news1.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여, 이한구 공천위원장 내정하고도 진통...속내 어떻게

이한구 위원장으로 10명 안팎 가닥...김무성-친박 위원 선임 기싸움 팽팽 양측 모두 '디테일 룰의 전쟁' 표결 고려하는 듯...금주 불발 우려도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이 이한구 위원장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0대 총선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위)를 금주 중 출범시킬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강하게 반대하던 '이한구 위원장' 카드를 받았으나, 위원 인선과 공천위 성격에 둘러싼 김 대표와 친박계 간 신경전 때문에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이날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위원 인선을 조율하고 있다.

김 대표가 친박계가 밀던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받는 대신 위원 선임 전권을 달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결국 김 대표가 위원 2명을 추천하고 최고위원들이 1명씩 추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최고위는 김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김태호·이인제·김을동·이정현·안대희 최고위원,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9명이다.

특히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 진통의 주요인이다.

김 대표는 현역의원 컷오프와 전략공천을 주장하는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받았지만 공천위는 실무적인 '공천관리' 역할에 한정돼야 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이 의원은 위원장 추대를 전제로 당·당규에 따라 공천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에는 우선추천제와 단수추천제, 자격심사 등 물갈이로 이어질 여지가 큰 내용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때문에 김 대표와 친박계 모두 공천위가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사안을 결정할 때 결국 표결로 갈 것이라고 판단, 위원 선임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선수가 심판을 볼 순 없다'는 점에서 지도부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은 공히 위원에서 배제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결국 외부 인사들이 공천위를 거의 채우게 된다.

현역을 배제하면서 사무총장단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경우, 황 사무총장과 홍 부총장 2명

이 현역이면서 김무성 대표와 가깝다고 평가 받는 인사들이라 이 부분이 맞물려 사무총장단 당연직 참여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에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4일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돼 있어 새누리당은 4일 전까지는 공천위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얽혀 진통이 이어

지면서 공천위 구성이 또다시 내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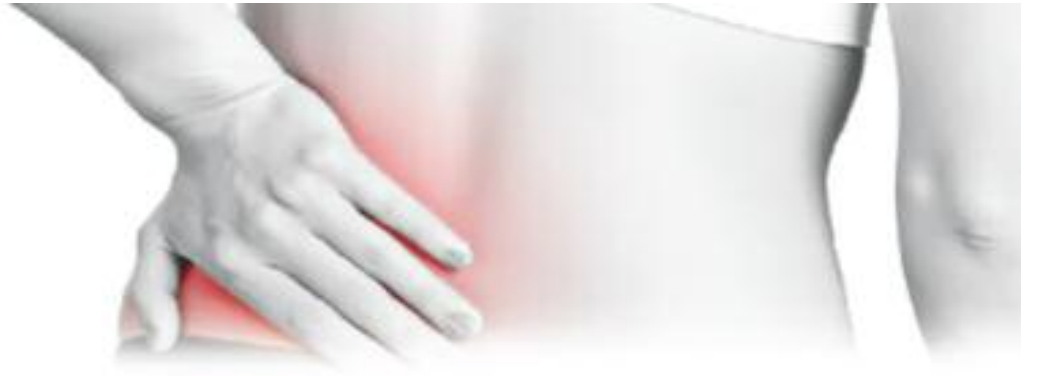
최고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한구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잠정 합의도 백지화될 수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범) 시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만 했다.

krusty@news1.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오른쪽)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작은 통증을 참지마세요

원장 윤창교수를 비롯한 전문 의료진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책임있고 성실한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정형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신경학적 물리치료 및 척추 진단 검사 등을 통해 보스턴 한인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각종통증치료, 척, 허리 디스크, 관절염 <외근보형> 학성보형, 어댑터보형, 개인보형 PPO, 상해보형

원장: 윤창
Dr.Chang Yoon, DPT
닥터스통증병원 대표원장
워싱턴 하틀리병원 재활의학과과장
뉴욕 닥터스클리닉 원장
네지니아 한국병원 원장
보스톤 노스어스틴 물리치료학 박사

Dr 닥터스 통증병원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www.GoodPT.com TEL: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지나 정 사원이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무료 체크계좌
- 모바일 banking
- 은퇴자금 관리 서비스
- 모기지
- 상업용 부동산 대출
- 사업 및 투자 대출

울스톤 지점을 방문하셔서
지나 정 사원을 찾아주세요



181 Brighton Avenue
800.657.3272 ebsb.com

Member FDIC. Member DIF.

틀잡는 '김종인 체제'...친문 색깔 빼기 · 통합에 방점

야권연대 논의 위한 '야권통합특위' 김 위원장 직속으로 들어갈 듯
 박수종 · 이용재 인선 및 조응천 영입 등 당 '넘나드는' 인선 '눈길'
 노영민 불출마 · 최재성 선대위원직 내놔...2보 진전 위한 1보 후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체제'가 틀을 잡아 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 측 소위 친문(親문 재인) 인사들이 '2선 후퇴'하며 요직에는 전문가나 중도성향 인사들이 속속 전진 배치되고 있다. 계파주의에 따른 당내 혼란을 막고, 당 안팎의 통합을 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의 친문색 빼기, 통합에 방점을 둔 당 구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은 지난 1일 발표된 중앙선대위 구성에서 잘 드러났다.
 더민주가 공천이 마무리되는 2월 말 또는 3월 초쯤 현재 비대위 · 선대위 동반체제에서 선대위 체제로 완전히 전환된다.
 조직적인 측면보다 인선에서 '김종인 체제'의 성격이 더 잘 드러나고 있다.

총선기획단장에 정장선 전 의원, 총선정책공약단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배치했다. 정 전 의원은 당 내외 중도성향을 띤 인사들의 모임인 '통합행동'에서 활약했다. 통합행동에는 김 위원장과 가까운 박영선 비대위원 겸 선대위원도 활동했었다.
 재선(광주 광산을) 출신이 전 의원은 행정자치부 ·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호남권 · 경제통(通) 인사다.
 당을 '넘나드는' 인선도 눈에 띈다. 김 위원장 정무특보인 박수종 전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과 이용재 전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장이 그렇다.
 광 전 수석은 2일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 의원이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려 했을 때 총무팀장을 지내는 등 안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왔다.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 전 원장은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맡

았던 '전력'이 있다.
 일명 '정윤희 문건'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건유출 파동'의 중심인물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반 비서관이 이날 입당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의 고향은 대구이며, 대구지검 공안부장,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영입의 물꼬는 문 전 대표가 트긴 했지만, '김종인 체제'에서 결실을 맺었다.
 무엇보다 문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노영민 · 최재성 의원이 당에서 손을 떼 것을 두고 '김종인 체제'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집 강매' 의혹으로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노 의원은 전날(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선대위원(총 16명)으로 임명됐던 최 의원은 같은 날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위원직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표에게 총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문의 후퇴'는 "2보 진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조직 측면에서 볼때 더민주 중앙선대위는 김 위원장 직속으로 홍보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선대위 산하에 총선기획단과 총선정책공약단을 두기로 했다. 이중 총선기획단 산하에는 △디지털본부 △경선관리본부 △전략기획본부 등 7개 본부가 설치된다. 총선정책공약단은 5~6개 본부를 두기로 했다.

통상적인 직제 구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추후 선대위에는 야권의 선거연대 논의를 위한 '야권통합특별위원회'와 '당의 텃밭'인 호남민심을 잡기 위해 '호남특별위원회'도 추가될 예정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야권통합특위의 경우, 지난달 25일 문 전 대표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협력을 약속한 '범야권 전력협의체' 문제가 가시화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야권통합특위는 김 위원장 직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cho11757@news1.kr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정동영 측, 김종인에 "정치공작 당직자에 응분 조치" 촉구

"더민주 핵심 당직자들이 정치적 음해 계획 꾸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동영 전 의원 측이 더불어민주당 복당의 대가로 전주덕진 전략공천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치공작을 자행한 관계 당직자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정 전 의원 측인 임종인 전 의원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정 전 의원과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한 번 만나지는 얘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은 없다'고 확인함으로써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 매체는 문 전 대표와 김 위원장이 정 전 의원에게 복당과 비례대표를 제안했고 정 전 의원은 복당 급부로 전주덕진 전략공천을 요

구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임 전 의원은 "해당 언론은 이 보도의 취재원을 신뢰할 수 있는 '더민주 복수 관계자'들이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더민주 핵심 당직자들이 같은 당의 전 대표와 현 비대위원장이 모르게 정 전 의원에 대한 정치적 음해 계획을 꾸밌음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음해정치는 한 정치인이 수십 년 쌓아온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야비한 권모술수이자 정치적 인격 살인 행위"라며 "김 위원장에게 이같은 정치공작을 자행한 관계 당직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응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김한길 3인체제...서열1위는 안철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안철수 · 천정배 의원이 국민의당 초대 공동대표를 맡기로 1일 결정됐다. 상임 공동대표는 천 의원의 권유로 안 의원이 맡는다. 형식적으로 보면 서열 1위는 안 의원이 되는 셈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김한길 의원이 상임 공동위원장을, 안 의원과 천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당 지도체제와 관련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창당준비위원회 최원식 대변인이 회견을 통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천 의원이 안 의원에게 (상임 공동대표직을) 권유하는 식으로 약간의 양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대표가) 두 분인데 '상임'이 필요하냐고 (의원들 간) 말이 있었다. 그런데 천 의원이 상임 공동대표를 (안 의원이) 하는 게 옳은 것 같다고 말해 그 뜻을 존중해 '상임 공동대표'로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천 의원은 논의 도중 안 의원과 회의장 밖으로 나가 따로 논의를 한 뒤 "상임 공동대표는 안 의원이 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같은 공동대표 체제를 의원들은 박수로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회는 오는 2일 중앙당 창당대회 뒤 내 · 외부 인사로 최고위원 4명을 임명하는 즉시 발표, 가동하기로 했다.
 이후 선대위도 바로 구성해 4·13 총선에 대비하게 된다.

선대위는 안 의원과 천 의원, 김 의원으로 구성되나 필요시 추가로 공동위원장을 선임해 확대개편할 수 있게 했다. 외부 선대위원장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이 거론된다.
 초대 당대표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의당은 오는 총선이 지나고 당 체제가 잡히면 전당대회를 열어 정식으로 지도부를 선출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주가 정말 몇 년은 된 것 같다. 부족한 점이 정말 많지만 정식으로 당이 창당되면 기대해주는 만큼 제대로 잘 만들겠다"며 "이번 총선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고 치르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임 선대위원장 내정 소감에 대해 "상황이 어렵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집이 무겁다"고 말을 아꼈다.
 ◇변형된 '안 원톱 체제'?...향후 과

제는
 2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이같은 당 지도체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상임 공동대표직을 맡는 안 의원은 당내 서열 1위에 오르게 된다.
 최 대변인은 "법률적으로는 (상임 공동대표와 공동대표 간) 큰 권한 차이가 없으나 당 회의를 주재할 때나 의전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창당작업 초기부터 차기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안 의원이 주축이 되며 '안철수 사당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후 김 의원과 천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합류하며 당내 주도권을 두고 알력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향후 안 의원과 천 의원, 김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역할과 권한을 조율해갈지가 오는 총선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pej86@news1.kr



국민의당 공동대표로 결정된 안철수(왼쪽), 천정배 의원(오른쪽)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립라, 코랄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방, 탄력, 밝은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의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화장품
컨설팅/교육/모형
홍은희

박 대통령, 북 '체제존립'까지 언급...북 미사일, 위기 속으로

박 "북 제외 5자회담" NSC "혹독한 대가" 청 "더 큰 제재" 이어
북도 우다웨이 면전서 장거리미사일 발사계획 국제기구 통보
남북, 물러섬 없는 강대강 대치 속, 박 대통령, 중국 끌어들이기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 상황이 속속 포착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체제 존립'까지 언급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 한반도 내 긴장의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오직 북한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교육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오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그동안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를 국제

사회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인 3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후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의 정부메시지를 발표했다.

또 앞서 박 대통령은 22일 외교안보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해야 한다"고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달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연일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대강(強對強) 대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4일 성명을 통해

북한 체제의 존립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또 전 세계, 특히 중국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체제 전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미가 주도하는 이 같은 대북제재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길만이 북한의 체제와 한반도 안보를 유지하는 길임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 이후 약 한 달 만에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등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특히 북핵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일 평양을 전격 방문해 북측과 대화 중재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하기까지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갖

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 등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남북간 '강대강' 긴장 국면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4일 성명에서 "이번에 유엔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도발을 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유엔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교육책으로 앞으로도 체제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며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했다.

birakoca@news1.kr



박근혜 대통령

군 "북 장거리 미사일 영토 들어오면 요격"

박 "강력한 유엔 제재 통해 핵포기 않으면 생존 불가능 깨닫게 해야"
군 "북 오래 끌지 않을 것" ... 이르면 설 연휴에라도 발사

(서울=뉴스1) 윤태형, 조영빈 기자 = 국방부는 4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영공과 영토에 진입할 경우 요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을 집중 감시 중이고 미사일 발사 시 이를 탐지·추적하기 위한 전력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 내로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영토내 낙탄 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능력으로 일단 요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군의 PAC-2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데 대해 문 대변인은 "고도 15km에서는 요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요격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자 "추후에 말하겠다"며 "우리가 가용한 능력을 완벽히 갖추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과 관련해선 "장거리 발사 준비를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구체

적 움직임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8~25일이라는 발사 기간을 통보해놓고 있는만큼 현재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로켓조립이 끝나고 연료주입 단계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 미군 배치와 관련한 한미 간 논의 여부에 대해 문 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전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비공식적 협의 여부와 관련 정부의 입장이 NCND(공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국방부는 즉시 "사드배치와 관련 비공식적 논의도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오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기와 관련 오래 끌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군 관계자는 "결국 기상조건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르면 설 연휴 기간에라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ptj@news1.kr

개성공단 폐쇄 카드 만지작?...열려있는 결말

정부 북에 '혹독한 대가' 경고...개성공단 폐쇄 포함될까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차질 불가피

(서울=뉴스1) 김효진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 미사일 발사 도발의 불뚱이 개성공단으로 튕기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일한 남북경협 창구인 개성공단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조치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2일 '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 3곳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는 국제 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중 최대 관심사는 정부가 일컬어 '혹독한 대가'에 개성공단 축소 또는 폐쇄안이 담겨 있는지 여부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수준이라는 점만 우선 말씀드리겠다"라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 도발 1주일 뒤인 지난달 13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질문에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개성공단에 추가적인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됐다.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후 개성공단 내 체류인원 및 입주기업 생산 활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은 기존 약 800명에서 현재 570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남·북·러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는 러시아 하산에서 출발한 석탄 등 물품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만큼 민간 기업인 포스코·코레일·현대상선 컨소시엄과 러시아 철도공사 간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이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하는데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오면 상대국인 러시아도 이를 검토해 줘야 한다"며 러시아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보리 제재 수위를 지켜본 후 개성공단과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대북제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5·24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은 현재 유일한 남북 경제협력의 장으로 꼽힌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되면 우리 측이 감수해야 할 부담 또한 크고, 다시 재가동할 때 명분을 만들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jinhk@news1.kr

1월 선박수주량 중국 10척 한국 '0척'...수주잔량도 감소세

월 선박수주 실적 '0'을 기록한 것은 2009년 9월 이후 6년4개월만
수주잔량이 3000만CGT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 1월말 이후 3년만
중국에 밀려 4년 연속 선박 수주 세계 2위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국내 조선업계가 지난 1월 단 한척의 배도 수주하지 못했다. 월 선박수주 실적이 '0'을 기록한 것은 2009년 9월 이후 6년 4개월만이다.

4일 조선·해운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1월 한국은 수주실적 '0'척을 기록했다. 현재 가동중인 국내 조선소는 20곳이다. 같은기간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16척, 45만CGT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5월 18척, 28만CGT를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말 그대로 극심한 선박 발주 가뭄이다.

일본과 중국도 동반부진했지만 그나마 '0'척은 벗어났다. 중국은 지난 1월 10척을 수주했다. 32만CGT(표준화물 환산톤수) 수주로, 1월 시장점유율 71.6%를 기록했다. 중국 역시 지난 2009년 5월 6만CGT 수주 이후 가장 적은 월간 수주실적이다. 일본도 2만CGT 1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선박 발주 급감 여파로 수주잔량의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다. 1월말 기준 전세계 수주잔량은 1억608만CGT로

지난달에 비해 약 365만CGT 감소했다.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 3874만CGT, 한국 2913만CGT, 일본 2251만CGT 순이다. 한국의 수주잔량이 3000만CGT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 1월말 이후 3년만이다.

선박 인도는 통상 관행에 따라 1월 큰폭으로 증가했다. 선주들은 선박의 '연식'을 고려해 연말보다 이듬해 초 선박을 인도해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매년 1월에는 인도량이 크게 증가하는데 올해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됐다. 전세계 인도량은 물론이고, 한중일 3국의 월간 선박 인도량이 모두 지난 해 1월 이후 정확히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에는 수에즈막스 유조선과 아프리카막스 유조선 선가가 각각 50만 달러 하락했으며, 17만4000m³급 LNG(액화천연가스)선 선가가 지난달에 비해 100만 달러 하락했다. 1월 클락슨 선가지수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한국 조선업계는 중국에 밀려 선박 수주 세계 2위에 머물렀

다. 중국의 선전으로 우리나라는 4년

연속 수주 세계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줬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수주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수주량이 전무했던 2009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고전했다.

한국의 지난해 연간 선박 수주량은 총 262척, 1015만CGT(표준화물 환산

톤수)에 그쳤다. 중국은 총 452척, 1025만CGT로 지난해에 이어 우리나라를 누르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일본은 914만CGT를 수주, 중국과 한국의 뒤를 이었다.

seeit@news1.kr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기로운 봄,
서울설렁탕의 미션,
특별 보양, 특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Facebook.com



서울 Seoul in Boston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Facebook.com

Salons by JC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영희와 귀여운 손잡고 머리만큼
복귀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탁 트리트먼트



2017년 1월 8일부터
H-Mart 앞
Middlesex Commons Mall에
위치한 Salons by JC로 이전

남자컷 25불/여자컷 35불/파마 75불 부터
다지깎 130불 부터/계곡핀 헤어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희 양구경, 김영남, 미운실, 쫄레오빌, 마리, 예은실, 송내 부천 박준, 오은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675 Lowell St. Rm #1 Lexington MA 0242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aveluy) Parish of Bosto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명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둘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l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총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이요 권리와 기쁨의 터니라 (딤후 3:15)

주일예배 / 오후 8: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대/유지/초등/중고등부예배/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 수요일 7:30
D.C.영양대성경교실 / 주일 오후 4시

담임 목사 / 우시향
7 Clemen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Broker/Owner of RE/MAX

www.ganainre.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F.S.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Pl. Lynn, MA 01904 Tel: (978) 985-0275, (978) 944-3404
www.boston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데스크 US 월드 링컨 프로
ej.usgw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사리에 따라 언제든 말씀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진심, 온전, 진내, 사랑, 온전, 부패함에 멸망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말학교, 찬양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교회 주일오후 12:30
속회교회 수-주일 속회별
유년교회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lex Efi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지사부터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와 Efit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결제처리 시스템을 도입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UMS 대표이사 겸 마케팅 **이선호**
781.266.7245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 National Grid와 비교해서
싸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seller로서 현재 미국 16개주에 있는
70만명에게 구역간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납입 내역은
www.xoomenergy.com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81.266.7245
한국어 상담 : 이선호 지사장 / energy@slp-xoom.com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들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지귀 케이크
- 국산산 유기점心和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다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이지나
변호사



이소연
변호사



박소나
변호사



Yoon Wa
공익연수생



박경영
서기관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패트리어츠 2015-16 시즌 그레이딩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패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수퍼볼에 진출하지 못하고 시즌을 마감했다. 비록 패트리어츠가 수퍼볼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다섯 시즌 연속으로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진출한 패트리어츠는 이번 시즌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할만하다.

올해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 패트리어츠 각 포지션별 점수를 매겨보자.

Quarterbacks

Grade: A

이번 시즌 NFL에서 가장 많은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한 탐 브래디는 패싱 야드에서는 리그 3번째, 패스 성공 횟수와 패서 레이팅에서는 리그 4번째를 기록했다. 만약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브래디는 MVP를 수상했을 것이다. 적어도 이번 시즌까지는 브래디의 실력이 하락세를 보이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Wide receivers

Grade: C+

줄리안 에들먼과 대니 아멘돌라 모두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번 시즌이 커리어 최고의 시즌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시즌 후반 부상으로 경기장에서 볼 수 없었다. 에들먼은 확고부동한 패트리어츠의 최고 리시버이지만, 그 뒤를 받쳐줄 확실한 리시버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패트리어츠는 오프시즌 동안 와이드 리시버 선수층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Running backs

Grade: D+

디온 루이스와 르게렛 블런트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패트리어츠의 공격을 훨씬 강력하고 다양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시즌이 끝나기 전에 시즌을 마감하는 부상을 당해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만 했다. 시즌 후반에 합류한 스티븐 잭슨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Tight ends

Grade: A

랍 그롱코스키는 올해도 리그 최고의 타이트 엔드로서 손색이 없는 활약을 했다. 패트리어츠의 성적은 그롱코스키의 건강과 컨디션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롱코스키는 시즌 중반 부상을 당했지만 플레이오프를 포함해 15경기를 소화하며 72 리셉션, 1176야드, 1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Offensive line

Grade: F

패트리어츠는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패배한 바로 다음날 오펜시브 라인 코치를 해고했다. 오펜시브 라인 때문에 경기에서 졌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쿼터백을 보호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패트리어츠의 오펜시브 라인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규시즌과 플레이오프 통틀어 브래디는 끊임없이 상대팀의 패스 러시에 시달려야 했다.

Defensive end

Grade: B+

최근 몇 년과 비교하여 올해는 패트리어츠의 패스 러시가 가장 빛을 발한



올해 패트리어츠가 수퍼볼에 진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오펜시브 라인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시즌이었다. 찬들러 존스(12.5색), 자발 쉬어드(8.0색), 랍 닌코비치(6.5색)는 모두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내었다. 패트리어츠는 1979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당 평균 1개 이상의 색을 기록했으며,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색을 기록했다.

Defensive tackle

Grade: B

패트리어츠는 오랜 기간 함께 했던 빈스 윌포크를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직전 떠나 보냈지만, 윌포크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올해 패트리어츠는 러닝 디펜스가 리그 9위로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Linebackers

Grade: B+

패트리어츠 2명의 라인배커, 제이미 콜린스와 단테 하이타워는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두 선수 모두 부상에 시즌 전 경기를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는 패트리어츠 수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선수층이 깊지 않아 콜린스와 하이타워가 부상을 당했을 때 빈자리를 채울 선수가 마땅치 않다.

Cornerbacks

Grade: B+

지난 시즌 수퍼볼 우승 이후 패트리어츠에서 가장 우려가 되었던 포지션

이 코너백이었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떠난 자리는 너무나 커보였다. 그러나 말콤 버틀러, 로건 라이언, 저스틴 폴먼 등의 젊은 선수들이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듯 시즌 내내 리그 최고 수준의 패스 수비를 선보였다.

Safety

Grade: A-

데빈 맥커티가 이끄는 세이프티는 시즌 내내 일관적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였다. 맥커티는 겉으로 보이는 기록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리그 최고의 세이프티로 꼽힌다.

jsi@bostonkorea.com

[MLB] 미 매체 "이대호, 시애틀과 1년간 마이너 계약"

시애틀 단장 "한국-일본에서 보여준 생산력 기대"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빅 보이' 이대호(34)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공식 확정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엠엘비닷컴'(MLB.com)에서 시애틀 매리너스 구단을 담당하는 그렉 존스 기사는 4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애틀이 이대호와의 마이너리그 계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같은날 '시애틀 타임스' 등 시애틀 지역매체들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오랜시간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대호는 끝내 '빅리그' 팀에 새 동지를 틀게 됐다. 이대호는 이로써 한국-일본을 거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네 번째 선수가 됐다. 이에 앞서 구대성, 임창용

이 한국과 일본을 거쳐 메이저리그에 데뷔했고, 지난달 오승환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정확한 계약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대호의 계약은 스플릿 계약(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때의 내용이 달라지는 계약)일 것으로 보인다. 존스 기사는 "이대호의 연봉은 400만달러로 알려졌다. 이는 그가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포함돼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시애틀 타임스'에 따르면 이대호는 현지시간으로 화요일(한국시간 3일)에 신체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아침 시애틀과 계약을 확정지었다. 시애틀의 제리 디포토 단장은 이

날 '시애틀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대호는 우타 파워 히터로 우리팀의 1루수 경쟁구도에 또 다른 가능성을 줄 수 있다"면서 "그는 매우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한국과 일본에서 보여줬다. 우리 팀에서도 그러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포토 단장의 말에 따르면 시애틀은 이대호에게 백업 1루수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애틀의 주전 1루수로는 이번 오프시즌 트레이드로 영입된 아담 린드로, 좌투좌타다. 우타자인 이대호가 그 백업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단은 스프링캠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대호의 1차 경쟁 상대는 기존우타 백업요원인 헤수스 몬테로, 가비 산체스다.

체중 조절도 필요하다. '시애틀 타임스'는 "이대호는 6피트4인치

(193cm)의 키에 280파운드(127kg)가 넘는 체중을 지니고 있다. 그의 사이즈가 1루수 수비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대호는 메이저리그에서 될 준비를 하기위해 미국에

서 운동하면서 체중 조절에 돌입하고 있다. 좀 더 노력한다면 적절한 체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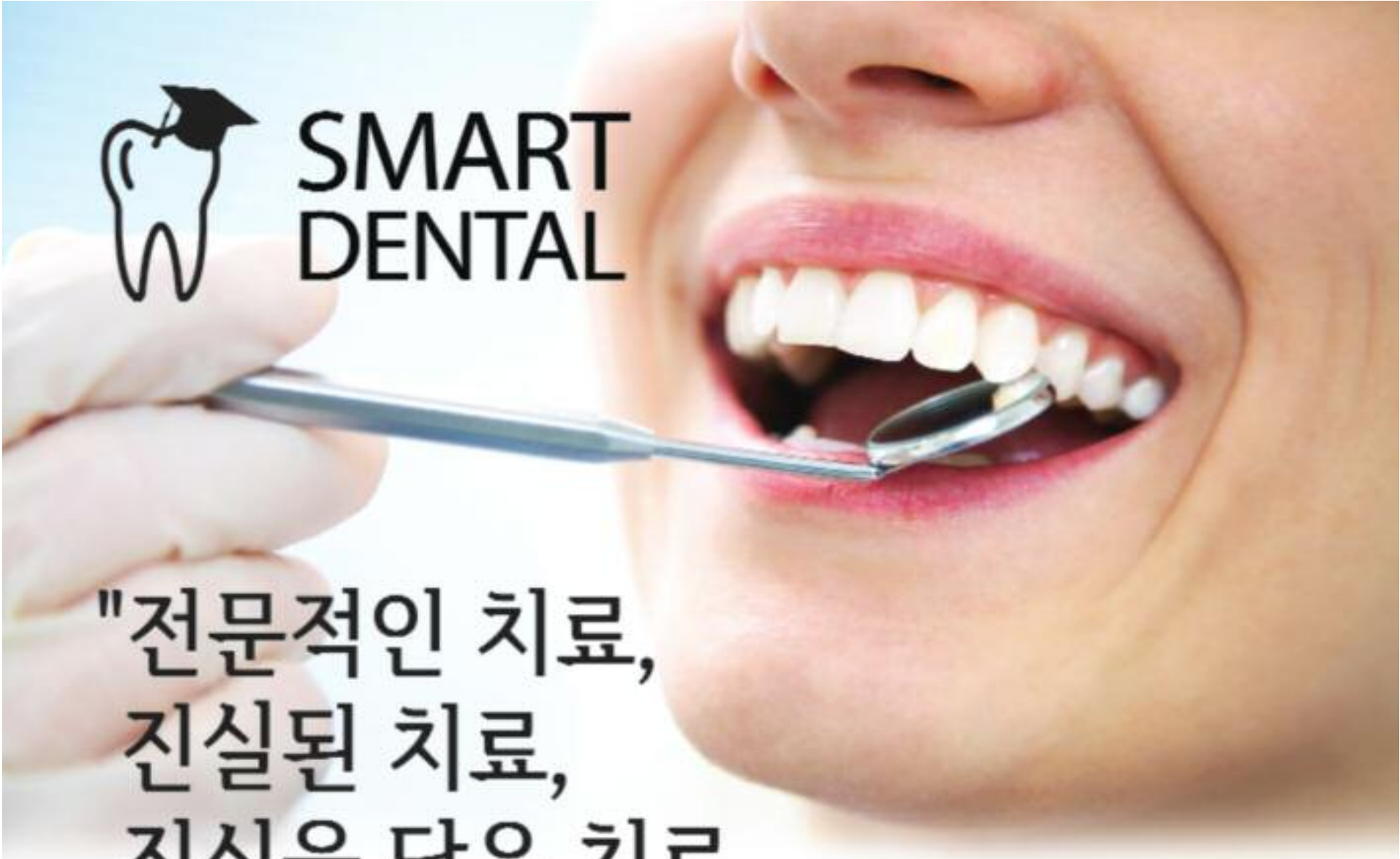
starburyny@news1.kr



'빅 보이' 이대호(34)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공식 확정됐다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부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김광오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단독주택 Single Family



\$485,000
Sharon, MA
4 Beds, 2 Baths, 1840 sf.
많이 업데이트 된 집
Cul-de-sac, 좋은 로케이션
이현주 401-935-3397



\$595,000
Sharon, MA
4 Beds, 2.5Bath, 2436 sf.
새집보다 좋은 집
호수가 있음,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리 978-806-6023

콘도 Condo 단독주택 Single Family



\$275,000
North Andover, MA
2 Beds, 2 Baths, 1060 sf.
Top/Penthouse corner unit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800,000
Lexington, MA
5 beds, 4.5baths, 3890 sf.
Custom built in 1991
Modern house 5000sf.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콘도 Condominium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217,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 sf.
New 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6064



\$560,000
Boston, MA
1 Bed, 1 Baths, 709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baths, 1579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5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f.,
Jay Lee 781-654-5281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Gina Choi 978-866-3248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무료
입장



토요일
2016년 2월 6일
오전 10시-오후 4시4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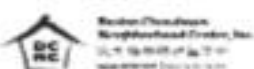
음력 설날 축제

MFA 에서 한국, 중국, 그리고 베트남의 전통을 경험하세요. 하루 종일 각국의 전통 예술, 각종 활동과 문화 체험 및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mfa Museum of Fine Arts Bo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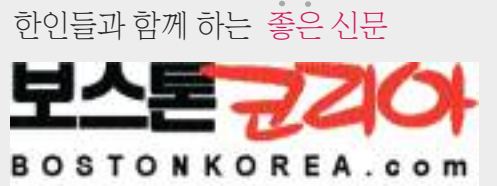
mfa.org/lunar

Partial sponsorship by the Boston Chinese Neighborhood Center, the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the IAS, and the Chinese Culture Connection. Additional support provid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NMF), Inagawa, and copyright Ivory Media. All cultural items courtesy of the respective organizations.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인회	978-407-7554
국제대한인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클럽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세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탈도도인협회	978-514-3399
한인학교총연합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협회(메인)	207-878-5652
625창조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나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4000
리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렐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2362
에이씨 뱀교회	978-274-3359
엠펙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 시온교회	413-549-9200
일주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센(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턴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커파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파어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명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루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국 변호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가트) (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이스덴탈그룹	781-894-1127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도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입주해서 쌍둥이 돌봐주실 분 구함.
Hmart 근처, T. 323-204-7423
카톡 010-5263-0047 (1월 17일 이후)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홈스테이, 룸렌트 스톤햄
93번 고속도로 3분 거리
T. 978-609-8749

N[매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지압소
성업중인 가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김에게 연락주세요)
T. 864-605-7045

N[구인]

플로리다지역 직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위치좋은 세탁소 매매



NATICK 다운타운에 위치한
세탁소(수선 포함) 매매합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

매매가격: \$63,000.00

Call: Renee Chakalos (Century 21)
617-256-550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HURAM Medi Tour Travel Company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2014년 KCCF평가 받음
처분당해되고, 폐업수준에 **대기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서울 의료비도 부담! 절전 프로그램
신원보증보험 제공 시 20% 추가

구분	1인	2인	3인	4인
서울메디케어	4,200,000	4,700,000	5,200,000	5,800,000
대우메디케어	18,200,000	19,000,000	19,800,000	20,600,000
삼성메디케어	22,200,000	23,000,000	23,800,000	24,600,000

루트모발 이식센터

유명, 저유 이식료

10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수많은 모발이식 전문수술실

공급/정제, 해외물품, 300여명 24시간 진료, 수술후 24시간 24시간 무료 상담, 24시간 응급수술 가능

원기	대우	삼성	신원	신원	신원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새미치과 특별할인

3월 6일까지 100% 할인

치과 진료	12000
치과 진료	6000
치과 진료	2000

메디그 엑스레이 특별할인

엑스레이	15000
엑스레이	16000
엑스레이	20000

HURAM Medi Tour Travel Company
www.huramkorea.com

미국문의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장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 huramkorea

'좋아해줘' 유아인, 톱스타가 톱스타를 연기하다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지난해 '아인시대'를 이끌었던 유아인이 상큼 발랄한 영화로 돌아왔다. 제목마저 귀엽다. '좋아해줘'는 시대의 흐름을 적극 반영한 작품이다.

SNS를 통해 싹트는 사랑, 지켜보는 재미,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두근거림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매력적이고 개성 넘치는 세 쌍의 커플이 서로 다른 색으로 영화를 채워나간다.

극중 유아인은 톱스타 노진우를 연기한다. 군대에 다녀와 작품 복귀를 망설이고 있지만 인기만큼은 여전히 뜨거운 인물. 어딜 가나 팬들을 몰고 다니고, 덕분에 치유가 불가능해 보이는 '연예인병'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해 불가 캐릭터는 아니다. 공감이 되는 지점들이 있을 뿐더러 실제 유아인과 닮은 구석도 많은 역할이다.

무엇보다 하는 짓이 귀엽다. 내색하지 않으려 하지만 온통 그의 관심은 스타 드라마 작가 조경아(이미연 분)를 향해 있다. 나이도 많고 심지어 어린 아들까지 있는데도 노진우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사실 노진우는 무명 시절 조경아의 작품에 출연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인연이 있다. 하지만 군 전역 후 조경아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심지어 캐스팅 제안마저 거절한다. 왜일까. 둘 사이엔 남들은 모르는 하룻밤이 있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하고 어색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 노진우는 조경아의 SNS 타임라인을 엿보는 재미로 하루를 보낸다. 이를 알게 된 조경아가 사진들을 비공개로 바꾸면서 노진우는 좌절한다. 그리고 급기야 친구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한류스타 노진우가 일반인에게 친구신청을 해야돼?"라고 분노하다가도 "작가도 공인이지. 준연예인이야"라며 스스로 합리화하는 장면에서 웃음이 터진다. 그러나 기 세고 당당한 조경아가 순순히 응할 리 없고, 두 사람은 계속 빼그덕댄다.



결혼도 하지 않은 조경아가 키우는 아들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 노진우는 아이 아빠에 대한 짐작을 버리지 못한다. "애 아빠를 알려주면 작품에 출연하겠다"는 제안까지 하면서 둘의 관계는 더욱 흥미로워진다.

까칠한 이미지와 안하무인 유아인의 조합은 매우 훌륭했다. 평소 이상형이었던 이미지를 만나 유아인은 연기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쳐보였다. 다소 페미니즘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대사도 조금의 거부감이 들지 않게 연기하는 것은 유아인이 가진 남다른 힘이다.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이미연 역시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캐릭터에 완벽하게 몰입했다. 으르렁대는 모습 속에 순정이 있는 이들 커플은 비현실적이면서도 심장을 방망이질하는 색다른 매력이 있었다.

uu84@news1.kr

'나쁜놈은 죽는다' 손예진, 살벌하게 돌아왔다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청순의 대명사'였던 손예진이 '살벌한 여인'으로 색다른 변신을 시도한다.

손예진의 새 영화 '나쁜놈은 죽는다'는 제주도 여행을 하던 친구들이 미스터리한 여인 지연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코믹액션극이다.

'나쁜놈은 죽는다'에서 미스터리 하면서 살벌한 지연 역을 맡은 손예진은 2014년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이후 1년여 만에 영화로 복귀하여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수 많은 영화들을 개봉시키며 스크린의 여신으로 각광받고 있는 손예진은 '오싹한 연애',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을 통해 코믹장르도 훌륭하게 소화하며 더 많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선보여왔다.

'나쁜놈은 죽는다' 특별 스틸에는 지연이 슬픈 표정으로 스스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어 그가 품은 사연에 궁금증을 더한다.

이번 영화에서 손예진은 상처를 직접 꿰매고 총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물고문 장면까지 소화하는 등 극한의 연기 투혼을 발휘했다.

올해 손예진은 영화 '덕혜옹주', '행복이 가득한 집' 등 여러 편을 선보일 예정이라 '스크린 흥행퀀' 면모를 과시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나쁜놈은 죽는다'는 오는 2월 4일 개봉한다.

uu84@news1.kr



'시그널' 과거로부터 온 무전, 나비효과가 됐다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시그널' 이재훈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과거와 미래가 순차적으로 변화했다. 시간의 흐름이 나비효과로 번져가고 있었다.

29일 저녁 8시30분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시그널'(극본 김은희/연출 김원석) 3회에서는 과거에서 온 무전을 받은 뒤 미래가 변화하는 걸 눈치챈 박해영(이재훈 분)의 혼란이 그려졌다.

박해영은 이재한(조진웅 분)과 무전을 했고, 이로 인해 이재한은 사건 현장에서 살해될 뻔한 여자를 구출해냈다.

이후 박해영은 살인으로 종결됐던 사건이 미제로 처리된 것을 알게됐다. 그는 당시 용

의자를 찾아가 "정말 경기남부살인사건 이미소가 죽지 않은 것이 맞냐"고 물었다. 당시 용의자는 "이게 전부 이재한 형사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이재한을 언급했고, 박해영은 자신의 무전으로 인해 과거 사건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눈치챘다. 또한 과거 사건에 대해 현재 사람들의 기억까지 바뀌었다는 알고 혼란에 빠졌다.

박해영은 이재한과의 무전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또 이로 인해 현재에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했고,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자책을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이재한과 무전을 했다. 그는 "아직 피해자가 한 명 남았다. 제발 부탁한다. 범인을 잡아달라"고 애원했다.

reddgreen35@news1.kr



'암살·도둑들' 오프닝도 제쳤다, '검사외전' 흥행 돌풍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한국버디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며, 황정민과 강동원의 환상 케미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검사외전' 흥행 돌풍의 시작을 알렸다.

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영화 '검사외전'(감독 이일형)은 지난 3일 개봉 첫날 52만5739명의 관객을 동원, 누적 관객수 538,747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영화 '암살'(47만7541명), '베테랑'(41만4219명)은 물론, '도둑들'(43만6596명)의 기록도 거뜬히 뛰어넘는 기록을 달성해 앞으로의 흥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사외전'은 황정민과 강동원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통쾌하고 유쾌한 스토리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

'검사외전'은 살인누명을 쓰고 수감된 검사 감옥에서 만난 전과 9범 꽃미남 사기꾼의 혐의를 벗겨 밖으로 내보낸 후 그를 움직여 누명을



벗으려는 내용을 그리는 범죄 오락 장르의 작품이다.

aluem_chang@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1월 25일 ~ 2016년 1월 31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부탁해요엄마)	34.9%
2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34.7%
3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7.5%
4	MBC	주말드라마(엄마)	22.1%
5	KBS1	KBS9시뉴스	18.5%
6	KBS2	일일드라마(다잘될거야)	17.3%
7	MBC	MBC스포츠축구	16.5%
8	MBC	무한도전	15.6%
9	SBS	드라마스페셜(리멤버아들의전쟁)	15.4%
10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나르샤)	15.1%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	KBS2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3	SBS	일일드라마(마녀의성)
4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5	MBC	일일연속극(최고의연인)
6	SBS	아침일일연속극(내사위의여자)
7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당신)
8	KBS1	대하드라마(장영실)
9	KBS2	일일드라마(다잘될거야)
10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나르샤)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01	너는 나라는 너	지코 (ZICO)
02	잊어버리지마 (Feat. 태연)	Crush
03	시간을 달려서 (Rough)	여자친구
04	어디에도	엠씨 더 맥스
05	Dream	수지, 백현
06	니가 하면 로맨스 (Feat. 다비치)	케이윌
07	또 하루 (Feat. 개코)	개리
08	사랑이었다 (Feat. 루나 of f(x))	지코 (ZICO)
09	OOH-AHH하게	TWICE
10	어떻을까	김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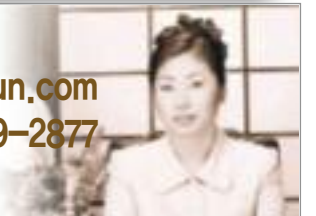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4			5	6				
3		2				4		
	8		4					
5		1		8				
6	3	9				1	7	8
				6		3		5
					3		6	
			4			8		9
			8		9			1

2월 7일 - 2월 1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시원하게</p> <p>● 운수: 운이 상승세를 타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시원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 금전: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결과와 이득이 따릅니다. 그동안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애정: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합니다.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8, 13일 길일, 7, 10일 주의.</p>	<p>소띠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고</p> <p>● 운수: 구태여 사서 고생하는 힘든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평탄하고 쉬운 길을 찾아서 가는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 금전: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고 큰 욕심을 내지 마세요. 더 욕심내면 이미 가진 것도 잃게 됩니다. ● 애정: 원하는 대로 다해주시는 어려워도 최소한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써주어야 합니다. 툴툴 애정 표현도 해야 하겠습니까. 85, 73, 61, 49, 37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p>범띠 한 번 더 생각해보고</p> <p>● 운수: 스스로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내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 금전: 다 낭비입니다. 몇 번 쓰지도 않을 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구입해야 합니다. ● 애정: 친구에서 연인사이로 발전하는 것보다 연인사이에서 친구 사이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더 힘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7, 10일 길일, 8, 11일 주의.</p>
<p>토끼띠 적합한 때를 만났으니</p> <p>● 운수: 시작하기 전에는 꿈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내면 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적합한 때를 만났으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줍니다. 매매나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애정: 편하게 얘기를 할 곳이 필요하던 차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보따리가 펼쳐집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p>용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p> <p>● 운수: 이동이나 변화하기에 좋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금전: 매상이 오릅니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뿔뿔하게 자리를 채우니 신나게 일하게 됩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미처 신경을 써주지 못했던 것들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빔을 덜어낸 것처럼 출가분해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p>	<p>뱀띠 빈 잔이 되어야 다시 채울 수 있듯이</p> <p>● 운수: 자신을 위해 모든 시간이 멈춰져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기회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 금전: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손해를 줄만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으니 잘 모르는 사람은 경계해야 하겠습니까. ● 애정: 빈 잔이 되어야 다시 채울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정리해두어야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p>
<p>말띠 가면 갈수록 통한다는 느낌이</p> <p>● 운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모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은 말투 하나에도 정감이 있으면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해주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 금전: 큰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이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처음에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7, 10일 길일, 9, 13일 주의.</p>	<p>양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p> <p>● 운수: 더디게 가는 사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차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쉽지만 어떤 이에게는 어렵지만 한 것입니다. ● 금전: 금전적인 부락을 거절하는 것이 당장은 편치 않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길게 보면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 애정: 너무 바빠서 함께 모여 식사하기가 어려웠던 가족이 모처럼 모입니다. 기분 좋은 대화도 오고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7, 11일 길일, 10, 13일 주의.</p>	<p>원숭이띠 미래에 집중해야</p> <p>● 운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겠으나,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 금전: 당장 눈앞의 이익만 따라가지 마세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집중해야 훗날에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 애정: 얼마나 힘든지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쌓아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병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0일 길일, 11, 13일 주의.</p>
<p>닭띠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p> <p>● 운수: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혼돈스럽기만 합니다. 어느 한 쪽으로 정하기가 어려워니 잠시 보류하도록 하세요. ● 금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구렁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 애정: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갈등만 커집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8, 13일 길일, 9, 12일 주의.</p>	<p>개띠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가는</p> <p>● 운수: 성공이란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생길 것입니다. ● 금전: 과거에 뿌렸던 씨앗이 어느덧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수확할 일만 남았습니다. ● 애정: 소개를 받는 자리가 있으면 마다하지 말고 만나세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상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8, 10일 길일, 7, 13일 주의.</p>	<p>돼지띠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p> <p>● 운수: 알찬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합니다. 보기 좋은 곳으로 손이 먼저 가기 마련이니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 금전: 다소 억울한 상황이 되기 쉽군요. 지금까지 애쓴 것에 대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서로의 생각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함께 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7, 12일 길일, 8, 11일 주의.</p>

안정환, 테리우스에서 '아재 안느'가 되기까지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축구선수로 황금기를 보낸 안정환이 방송인으로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허술한 듯하면서도 강단 있는 안정환의 매력은 새로운 캐릭터에 목말랐던 방송가의 대비 같은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이하 냉부해) 제작진은 2일 안정환의 고정 MC 합류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앞서 정형돈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한 차례 스페셜 MC로 나선던 그가 재차 '냉부해'에 출연했던 상황. 차기 고정 MC 후보로서 그를 판단하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다소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정환은 특유의 털털하면서도 능글맞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왔다. "요리 프로그램인데 수업을 덤수룩하게 기르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는 김성주의 지적에 안정환은 "다음에 혹시 나오게 된다면 면도하겠다"고 대차게 선언했다. 승부사 특유의 기질이 엿보이는 부분이였다.

꽃미남 축구선수로 그라운드를

호령했던 안정환은 이제 방송가에 없어서는 안 될 방송인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MBC '아빠 어디가'를 통해 자연인인 아빠 안정환의 면모를 보여주며 호감 지수를 높인 그는 축구해설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중과 친밀하게 호흡했다.

특히 김성주와 만났을 때 유독 시너지를 발휘하는 안정환은 이후에도 다양한 중계 프로그램과 MBC '마리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그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구수한 입담과 털털한 면모는 '아재'임과 동시에 '안느'라는 극과 극의 별칭으로 자리 잡았고, 편안한 매력으로 시청자들

에게도 다가왔다. 정형돈의 부재와 하차 이후 '냉장고를 부탁해'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스페셜 MC 중 안정환이 특출 나다니고는 볼 수 없다. 더 강한 입담과 재미를 선사했던 MC들이 존재했음에도 안정환이 고정 자리를 꿰찬 것은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강한 지지였다고 이동휘 CP가 밝힌 바 있다. 편안하고 수더분한 '아재' 안정환은 타인을 빛나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미덕인 MC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시청자가 인정한 '안느' 안정환의 활약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몰카배틀' 이특 · 민아 홍콩 밀회 포착 헤리의 반응은?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슈퍼주니어 이특과 걸스데이 민아가 홍콩에서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1일 MBC 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비 오는 홍콩의 거리, 우산 하나를 나눠 쓴 이특과 민아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시종일관 딱 붙어서 홍콩 시내를 거닐고 있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낭만적인 연인'의 모습이였다. 사실 이 스캔들은 드라마와 CF 출연 등으로 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100억 소녀' 헤리를 속이기 위한 몰래카메라 시나리오였던 것.

이특은 최근 진행된 MBC 설 특집

프로그램 '몰카배틀-왕좌의 게임'에 이경규, 이특과 함께 MC로 참여했다. 그는 아이돌 경력 12년차로, 아이돌 스캔들에 특화된 MC답게 스스로 '이특, 민아의 열애 스캔들'에 출연하며 몰카를 준비했던 것.

열애 현장이 포착되어 기사가 터지기 일보 직전,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이특은 민아를 만나러 홍콩까지 찾아와서 공개연애를 하자며 저돌적인 애정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이특과 민아를 보며 헤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몰카배틀-왕좌의 게임'은 설 연휴 기간 중 방송될 예정이다.

aluem_chang@news1.kr

'무한도전-못친소 페스티벌2' 4년 만의 귀환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의 '못친소 페스티벌'이 4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지난 2012년 방송된 MBC '무한도전'의 '못친소 페스티벌'은 못.매.남(못생겼지만 매력 있는 남자들)들이 모여 즐기는 축제로 당시 김범수, 고창석, 이적, 조정치 등이 참여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에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못친소 페스티벌 시즌2'에서는 못생겼지만 볼수록 호감 가는, 볼수록 사랑스러운, 볼수록 예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지난 시즌과는 달리 '못친소 월드컵'을 개최해 16강에 오른 정예 멤버에게만 초대장을 전달했다.

배우, 스포츠 스타, 가수 등 나이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외의 인물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자아낸다. 과연 '못친소 페스티벌-시즌2'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지 오는 6일 오후 6시25분 방송된다.

aluem_chang@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Sales Representative Wanted

Japanese Food Wholesaler needs a full time sales rep to maintain and expand restaurant accounts in the Greater Boston area.

Qualifications:

- Able to speak English
- Able to speak Korean, preferred
- Able to be respectful to customers, co-workers and management
- Competent driver with valid driver's license
- Good office skills including computer literacy
- Able to pass a drug screen
- Able to lift heavy product items from time to time weighing as much as 50 lbs.
- Familiar with the restaurant business and/or wholesale food business

To apply please send your resume to:
True World Foods Boston c/o 스티브 김,
22 Foodmart Road, Boston, MA 02118.
Or email to stevekim@trueworldfoods.com

Tel: 617-596-1377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00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급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용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매 장면 궁금한 미스터리 멜로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 왜 여자는 알면서 모른척하고 남자는 10년간의 기억을 통째로 집어삼켜 버렸나. 영화는 두 시간 동안 이를 쫓아가며 미스터리 멜로의 매력을 듬뿍 담아냈다.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감독 이윤정)는 정우성이 배우 겸 제작자로 나서 화제가 된 작품이다. 상대역인 김하늘도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반하게 만든 이유를 작품을 접한 뒤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영화는 실종신고를 하러 파출소를 찾은 연석원(정우성 분)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시계를 돌려 그의 행적을 더듬어나간다.

비주얼의 조화만으로도 화제가 된 정우성과 김하늘은 높은 집중력으로 캐릭터의 섬세한 감정을 짚어나간다. 선함과 악함, 혼란, 공포, 불안, 설렘, 애정까지 눈 속에 모두 담아내는 정우성의 내공은 가히 놀랍다. 김하늘이 정우성의 최고 강점으로 '눈빛'을 꼽은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김하늘 역시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의 몰입을 돕는다. 후반부 눈물이 폭발하는 장면에서는 보는 이들도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애절하게 주인공의 심리를 꺼내보인다.

uu84@news1.kr



티보플레이 1월 4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우리집 꿀단지 |
| 2 | KBS |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
| 3 | SBS | 마녀의 성 |
| 4 | MBC | 내일도 승리 |
| 5 | MBC | 최고의 연인 |
| 6 | SBS | 내 사위의 여자 |
| 7 | MBC | 아름다운 당신 |
| 8 | KBS | 장영실 |
| 9 | KBS | 다 잘될거야 |
| 10 | KBS | 육룡이 나르샤 |

티보플레이 1월 4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MBC | 스누퍼 프로젝트 |
| 2 | MBC | 천상의 약속 |

티보플레이 1월 4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나를 잊지 말아요 | 정우성, 김하늘 |
| 2 | 올보 권투부 | 다큐멘터리 |

'배우학교' 박신양 "가혹한 기획이라고 생각, 연기 단시간에 안 늘어"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배우 박신양이 처음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 생각을 밝혔다.

박신양은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호텔에서 열린 tvN '배우학교'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계획 처음 들었을 때 재밌는 기획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너무 가혹한 기획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연기를 배우는 건 시간이 정확하게 필요한 건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연기를 배우는 프로

그램을 만든다는 건 서로에게 가혹할 수밖에 없는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러 가혹하게 하지는 않았다. 연기를 배우는 건 원래 가혹하다"고 자신의 연기관을 밝혔다.

'배우학교'는 배우 박신양이 연기를 배우고 싶은 연예인들에게 직접 연기 교육에 나서는 신개념 프로그램이다. 박신양의 새로운 도전 뿐만 아니라 이원종, 박두식, 심희섭, 장수원, 남태현, 유병재, 이진호 등이 학생으로 출연한다.

reddgreen35@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24.99**

Tbo 플레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한국 방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코자 특별할인을 실시합니다.

본문에 기재된 최신 정보입니다. 일부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Best On Demand, TBO On Demand TV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TBO Play, On Demand TV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TBO On Demand TV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TBO On Demand TV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The Best On Demand, **tbo**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클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 급매** 3.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6. 드롭오프 스토어 : 알링턴 메인스트리트에 위치. 년 매상 5만-7만. Asking **\$20,000**
7. 세탁소 : 보스턴 북부인근. Asking **\$150,000**
8. 보스턴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Asking **\$225,000**
9.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10.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군. Rt 9 인접, 근처 Chestnut Hill 쇼핑몰과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3,400**
11.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2. Brighton. 4 Bed 2 Bath 2,379sf 히팅,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12. 렌트 : 1731 Beacon st Unit 113 Brookline 2bed 1 bath 1 garage parking, heating, hot water included. **\$2,8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3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할 과제는 내 개성에 맞는 인생의 길이 다. 소질과 취미가 있는 일은 70의 노력에서 100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취미와 소질에 어긋나는 일에서는 100의 노력을 해도 70의 결과를 거둘 뿐이다. 그 차이가 일생 동안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놀라운 거리를 만들겠는가." --- 김형석의 「살아가는 동안에」에서.

지난 12월 중 하루였다. 한국에 계시는 시아버님께서 막내며느리에게 김형석 교수님의 '가장 행복한 삶'이란 주제의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 영상 속의 말간 모습의 노인은 1920년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출생하시어 지난해 아흔여섯이라고 하셨으니 새해 음력 설을 맞으시면 아흔일곱이 되시는 것이다. 그 연세에 어찌 그리도 맑고 고우시던지 영상을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보았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영상 속에 삽입된 어느 소프라노 음악가의 자장가도 어찌나 좋던지 요즘 들으면 눈을 뜨면 들어보는 버릇이 생겼다. 보고 또 봐도 좋고 듣고 또 들어도 좋은 귀한 영

상이다. 이렇게 김형석 교수님의 영상을 받고 시아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젊은 날에 이분의 철학 수상록을 좋아했노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더욱 반가워하신다. 지금도 김 교수님의 기억나는 수상록 집 중에 문학세계사에서 출간한 「잠들지 않은 영혼을 위하여」를 읽으며 지금은 내용이 가물가물하지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다. 젊은이들에게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두들기게 했고 그 깊은 생각의 숲에서 머물러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의 창을 열어주었던 푸른 하늘 같은 내용이었다. 지금도 마음에 무엇인가 청량한 물을 만난 듯 상쾌한 느낌. 35여년 전 우리 기성세대들의 시대는 참으로 암울했던 시기였다. 여기저기 사방을 둘러보아도 실오라기 빛 하나 찾기 어려울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였다. 희망이란 단어조차도 빛바랜 낡은 종잇장처럼 바람에 날려 사라질 처절하리만치 절망에 절은 그런 시대였다. 그 암흑의 어두운 시대에 김형석 교수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외침은 한줄기 실빛처럼 다가왔는지도 모른다. 그 우울하고 암울했던

한 시대를 온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으로 버텨온 맑은 영혼의 한 노인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어쩌면 그 시대를 거쳐왔기에 가능했으 그 맑은 영혼의 소유자를 볼 수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사는가. 누구도 자신있는 대답은 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부분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 살고 있다. 물질적 소유는 돈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많다. 물질적 소유 못지않게 귀중한 것은 권력, 명예, 지위 등이다. 그래서 돈을 번 뒤에는 명예나 권력을 소유하고 싶어진다. 이렇게 소유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육체적 생명이 끝나면 소유도 끝난다. 소유는 욕망의 대상이며 육체를 떠나면 욕망은 끝나기 마련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꿈도 그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고 말았다." 그렇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가장 행복할까. 무엇보다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행복한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도 벌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을까마는 우리 기성세대에서의 그런 일은 극히 드물지 않았던가.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세우는 이들이 늘고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능률도 오를뿐더러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인생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만족하는 삶. 우리는 진정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일까.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다. 하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 애쓰는 삶은 무엇인가 조금 간이 배지 않아 싱거운 맛이 난다. 제대로 된 행복의 참맛은 무엇보다도 나 아닌 다른 이와 더불어 함께 사는 일이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며 살기 쉽다. 아니, 어쩌면 머리의 생각으로는 아는데 몸으로 수고해야 할 실천하기에는 주저하는지도 모른다. 오늘 여기에서 물음 하나 가슴에 남는다. 지금 그대는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한담객설閑談客說: **젊은 느티나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날이 추워졌다. 찬바람도 불었다. 오대호를 지난 캐나다발췌 북서풍 일제다. 바람은 얼음된 눈덩이는 데려가지 못했다. 방한복防寒服입지 못한 나무가지만 세차게 흔들었다. 눈은 다시 내려 쌓일 것인가. '그에게서는 늘 비누냄새가 났다.' 강신재의 소설 '젊은 느티나무'의 첫대목이다. 육십년대 초반이 배경이다. 요새 같았으면 막장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터. 그래서 그런가 나는 이 소설을 읽고 가슴 설레지는 않았다. 현실처럼 읽히지 않았으니 말이다. 아버지가 교수라 했는데, 대단한 재력가처럼 보였다. 집안에 테니스코트가 있다고 했다. 오렌지 주스를 음료수로 마셨다고도 했다. 차라리 라면을 먹고, 소주를 마셨다면 어땠을까 모르겠다. 미제美製 다이알 비누냄새만 코끝에 감겨 들었다.

비누냄새는 진하고, 느티나무 시시는 맑다. 젊은 느티나무도 나이 들었다. 느티나무는 언제나 당당하게 늙는다. 삼백년 묵은 느티나무에서 하루가 맑았다고 까치가 운다. 잡것 (함민복, 목상) 나무의 나이는 수령樹齡이라 던가. 수령 높은 느티나무는 시골 동네 초입에 묵묵히 서 있다. 소설같은 장면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어디 동네 입구 뿐이라. 창덕궁엔 나이 많은 나무들이 여전하다. 몇년전 창덕궁을 거닐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어릴적 소풍으로 촌에서 울

라와 왔다. 수십 년후 그곳에 다시 들어가 볼 수 있었던 거다. 그날은 초겨울인데, 나무들이 뿜어내는 향내가 계절의 뉘새와 구별할 수 없었다. 흙내음도 아닌것이, 진한 소나무 향내였지 싶다. 나무 냄새와 어울려, 그윽하고 고즈넉하기가 과연 임금님이 산책하던 곳이었다. 스스로 감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곳곳에 나무에 가마니로 덧옷을 입힌게 보였다. 월동준비越冬準備 인제다. 그날 그 곳에서 느티나무를 봤는지 그건 기억에 없다. 분명 있었을 게다. 그 자리에서 수백 년을 지키고 서 있었을 터. 수령은 높되, 여전히 젊어 풍모도 늙름할 게다. 온갖 세월의 풍파를 지켜봤음에 틀림없다. 윗편에 규장각이 보였던가. 왜 식솔들을 그곳으로 이끌었는지 그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궁궐안을 산책했다. 의도는 그럴듯 했다만 날씨는 짓궂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추운 날이었던 거다. 흠저고리 입고 갔다가 감기를 안고 돌아왔다. 내복을 입고 가지 않았다. 당연한

고 빨이었고 임금님 감기였다. 올해 겨울엔 젊은 느티나무인 나도 내복을 입었다. 한차례 감기치레를 한 다음이었다. 작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다. 내복은 미제美製 (실은 메이드인 차이나 일제다. 확인하지 않았다)라 그런가 몸에 달라붙었다. 여영 편하지는 않다. 그래도 불편 감수해야 한다. 다시 감기에 걸리기 싫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가 말씀하시던게 귀에 생생하다. '뒹은 무슨 뚱. 뚱뚱한게 최고니라.' (어머니는 따뜻한 걸, 뚱뚱이라 발음하셨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다. 조금 불편해도 뚱뚱한게 최고. 겨울이면 나무들도 외투를 입는다. 가마니든지 뭐든지 덧 씌우는 거다. 세월이 흐르면, 젊은 느티나무도 늙어 간다. 청춘도 지독한 비누향쯤 사라지듯 간다. 푸석푸석한 비누덩이가 된다는 말이다. 내복입은 젊은 느티나무는 마을입구를 지킨다. '네 걸음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누가 6:29)

기자 모집

보스톤코리아에서 기자를 찾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환영합니다.
작은 커뮤니티지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을 믿는 그런 기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보스톤 **코리아** 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취재 전문기자를
찾습니다



정규 기자직 : 풀타임 0명
취재전문 파트타임 0명
지원 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자
한국어 능통 및 영어 가능자
기자 경험자 우대
근무조건 : 셀러리 베이스, 편리한 근무시간.
(필요시 비자 지원 가능)

전형과정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지원서류 : 이력서(영문 또는 한글), 자기소개서
관심 분야: 250 단어(워드 기준) 내외 기사작성 본
모집마감 : 2016년 2월 16일
면접시 지참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수습기간 : 4개월 (수습기간은 기본 연봉의 50%)
보수 : 추후협상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 소개서, 기사작성본을
editor@boston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1. 리틀 빅혼 강 전투와 카스터 (2)

또 금광 발견이 문제였다 (계속)

1875년 12월 3일 인디언담당 국장인 스미스(Edward Smith)는 다음해 1월말까지 지정된 주거지역 밖에 거주하는 인디언은 모두 주거지역 안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기는 인디언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공격하여 강제로 끌고 오겠다고 발표하였다. 1876년 2월 7일에는 미국의 전쟁부가 관구사령관인 웨리든 장군에게 적대적인 인디언에 대한 공격을 승인하고 그 다음날 웨리든은 그의 부하들에게 미친 말의 숙영지인 파우더강과 빅혼강 유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실 1월 혹은 속에서 어린이와 여자들을 트레보이(travois; 두 개의 장대를 A자 형태로 틀에 붙들어 매어 개나 말이 끌게 하는 운반 용구)에 태워서 먼 거리를 이동하여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3월이 되자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던 사이엔과 수우 인디언들 중 상당수가 들소나 영양을 사냥하기 위하여 파우더강 지류 쪽으로 가서 거기 있던 적대적 인디언(지정된 주거지역 입구를 거부하고 있는 인디언)과 합류하였다. 3월 17일 미군 기병대가 이 숙영지를 습격하여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1000마리 이상의 말을 끌고 가버렸다. 그러나 그날 밤중에 인디언들은 미군의 숙영지에 몰래 들어가서 빼앗겼던 말들을 다시 찾아왔다. 집과 살림살이를 모두 잃어버린 인디언들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

던 미친 말의 인디언캠프로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다. 봄이 되면서 곧 미군의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미친 말은 자기를 따르는 인디언 부족 모두를 텅 강 유역에 있던 흥크파파 지파의 추장 앉아있는 소(Sitting Bull)의 캠프 근처로 옮겼다. 날이 풀리자 많은 젊은 인디언들이 사냥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떠나 북쪽으로 이동하여 로즈버드강가에 있던 인디언들과 합류하였다. 이 무렵 미군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하여 세 방향에서 인디언 밀집지역으로 진군해오고 있었다.

시팅불과 크레이지 호스에 의한 카스터 부대의 전멸

1876년 6월 16일 사이엔 사냥꾼이 로즈버드(Rosebud)계곡에서 야영 중인 크록 장군(George R. Crook)의 부대를 발견했다. 이른날 앉아있는 소, 미친 말, 그리고 두 달(Two Moons)의 지휘 하에 천명의 수우족과 사이엔족 전사가 미군부대를 공격하였다. ‘로즈버드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에서 발생한 사상자 숫자는 불분명하지만 인디언 측보다는 미군 측이 더 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미군은 주거지역을 벗어나 있는 인디언들을 잡아 주거지역으로 다 몰아넣기 위하여 세 갈래의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었다. 세 부대중 하나가 바로 크록 중장의 부대로서 그의 부대는 페터만 요새에서 출발하여 보즈만 도로를 따라 파우더강을 향하여 북쪽으

로 진군하던 중이었고, 기본(John Gibbon)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는 몬테나의 엘리스 요새(Fort Ellis)를 출발하여 동쪽으로 진군해 오고 있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테리(Alfred Terry) 준장이 이끄는 부대로서 여기에는 카스터의 제기병대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은 다코타의 링컨 요새를 출발하여 서쪽으로 행군해 왔다.



(리코타 수우족 토벌을 위한 미군의 작전 개념도, 1976)

그러나 이 세 갈래 전략은 출발부터 차질을 빚게 되었다. 크록의 부대가 로즈버드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어 증원군을 추가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전력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작전수행을 중단하고 기지로 돌아가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중이었다. 제대로 된 통신수단이 없던 시절이라 기본과 테리의 부대는 크록의 부대가 일격을 당한 사실도 모른 채 인디언의 빅혼 강가 야영마을로 계속 진군하였다. 테리는 로즈버드 강어귀에 이르러서는 카스터에게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로즈버드 강을 거슬러 남쪽으로 진군해 갈 것을 명령하였다.

한편 로즈버드 강 전투가 끝나자 인디언 연합부족들은 풀이 더욱 기름지고 사냥감이 풍부한 리틀 빅혼강 쪽으로 이동하여 강의 서쪽둑을 따라 약 5km에 걸쳐 인디언 티피촌을 이루었다. 대체로 수천 명의 젊은 전사를 포함하여 만 명 이상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팅불이 이끄는 흥크파파족이 언제나 마을의 입구나 그트머리에 위치하였듯이 이번에도 강 상류 제일 남쪽에 자리를 잡았고 북쪽 끝에는 사이엔족이 있었다. 그 사이에 산아르크지파(Sans Arc), 미네콘주 지파(Minneconjou), 오글라라 지파(Oglala), 브루레 지파(Brulé)가 들어와 있었다. 전설적 전투영웅 미친 말도 오글라라 지파 캠프에 머물고 있었다.

6월 25일 새벽에 카스터 부대와 동행했던 인디언 용병 정찰대가 약 24km 떨어져 있는 리틀 빅혼 강가에서 인디언마을을 발견하여 카스터에게 보고하였다. 카스터는 지체하지 않고 그날 낮 시간 동안에 바로 기습 공격하기로 정하고 부대 병력을 셋으로 나누어 인디언 캠프를 포위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카스터는 전투보다는 인디언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모두 다 잡아서 거주지역으로 보내는 데에 관심이 더 많았다. 한 소부대는 카스터가 직접 지휘하고 나머지 두 소부대는 각각 리노(Marcus Reno) 소령과 벤틴(Frederick Benteen) 대위가 맡았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16 화랑세기花郎世紀, 1세 풍월주風月主 위화랑魏花郎(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옥진이 들어가 범흥왕에게 사랑을 받아, 곧 다시 처음과 같이 위화랑을 총애하게 되었다. 마침내 공은 이찬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옥진이 범흥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되자, 보도(保道)로 하여금 비구니가 되게 하고 위화랑을 신하로 삼았다. 그리고 지소태후가 국정을 맡자 화랑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공(위화랑)을 그 우두머리로 삼아 이름하여 풍월주(風月主)라 했다.]

옥진공주는 오도가 위화랑에게서 낳은 딸이다. 이 일로 인하여 범흥이 잠시 위화랑을 멀리했었는데 위화랑의 딸 옥진이 범흥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범흥왕이 위화랑을 좋아하였다. 그리고 위화랑의 관위를 수상에 해당하는 이찬으로 승차시켰다.159) 그리고 범흥왕은 옥진공주에게 빠지면서 정비인 보도왕후를 내치어 비구니를 만들었다. 지소태후는 범흥왕의 딸이다. 어머니는 보도왕후이다. 지소는 삼촌인 임종갈문왕과 결혼하였고 진흥왕을 낳았다.

신라의 화랑도라 하면, 삼국사기에 인용된 한 문장의 내용과 같이 모두가 현좌충신(현좌충신)이요 양장용졸(양장용졸)이어야 하며, 열전에 나오는 인물들

의 활약상처럼 전장에서 백전백승하거나 목숨을 버리고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만 되는 것 같은데 화랑세기속의 화랑들은 활동은 예상을 빚나간다. 그들의 활약상보다는 인물을 위주로 한 혼인관계나 복잡하고 문어다리처럼 얽힌 남녀간의 관계와 사통 등 심지어 남색의 정황도 여러군데 있다. 하지만 화랑세기(花郎世紀)는 문자 그대로 화랑도들의 특히 그들의 수장인 풍월주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세보(世譜)나 계보(系譜)이다. 지소태후가 어린아들 김삼맥(金三麥)이 왕위에 오르면서 수렴정(肅正)을 하였다. 540년 진흥왕이 즉위를 할 때의 나이가 삼국사기에는 7살, 삼국유사에는 15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역사적인 정황을 종합해 보면 삼국사기의 7살이 더 유력하다. 또한 지소태후는 단순히 왕의 어머니로서 수렴정(肅正)을 한 것이 아니라, 범흥왕과 정비 보도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없는 관계로 차기 왕위계승의 권력투쟁에서 남편이 없이도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잇게한 여걸이었다고 보여진다. 지소의 남편 임종은 진흥왕 즉위하기 전에 죽었다. 사서에는 기록이 없지만 후일 발견된 ‘울진봉평신라비’ 160)와 ‘천전리 금석문’ 161)을 비교해 보면 밝혀진다. 그리고 임종이 살아 있었다면 왕위가 임종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더 있었다. 지소태후가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남긴 행적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고 후대에 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화랑도(花郎徒) 창설이다. 이 화랑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지소가 화랑을 설치하였다. 또 조선 초기에 편찬된 ‘삼국사절요’와 ‘동국통감’에서 그 설치 년도가 540년, 즉 진흥왕의 즉위년에 진흥왕이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조직적인 체계는 540년이라고 보더라도 이미 조직화된 화랑도의 성격을 띤 무리와 활동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7세의 어린 왕 진흥이 직접 설치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며, 결국 설치의 주체는 지소태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그 이전부터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존재해 오던 전통적인 무리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승인하여 추진한 주체는 당시 섭정을 하면서 정권을 잡고 있던 지소태후이다.

창설 취지와 목적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삼국유사에서는 진흥왕이 신선술(神仙術)을 매우 숭상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삼국사기를 따르면 화랑도는 고등교육기관이고 삼국유사를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이 되고자 열망하는 도교의 집단(교단)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여러가지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화랑도는 도교의 교단(교단)이 되면서 아울러 좋은 인재들을 길러 내었다.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신라인들의 삶을 지배했던 교리는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였다. 그 략다고 이 세 교리가 분리되어서 지배하였다기 보다는 서로가 어우러져서 신라인들의 삶에 녹아 있었다. 화랑도가 신선이 되기 위하여 지속적인 수양을 하는 가운데서 도교적인 면을 부각해 보다면, 김대문의 ‘화랑세기’의 성적(性)적인 내용을 신라인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방중술(房中術)이다.

159) 이찬은 신라의 관위 중 2등으로 이척찬, 이간, 일척간이라고도 한다. 이찬은 처음에는 수상에 해당하는 최고의 관위였는데 후에 이찬 위에 ‘이별찬’이 만들어졌다.

160) 국보 제252호, 1988년 1월 20일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에서 발견했다.

161) 1970년 12월, 황수영, 문명대 교수가 이끄는 ‘동국대학교 울산지구 불적(佛跡)조사대’가 경남 울주군 천전리에서 발견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 및 문의: 보스톤 **코리아** T. 617-955-9112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150만원 120만원	무삭제 라미네이트 80만원 60만원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대표원장 이두형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동부병원 치과 과장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외래교수
- 대한구강악안면임상학회 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보존학회 정회원

무삭제 라미네이트,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미백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80만원

더이상 전립선 수술 NO!

시술 20분 / 극소마취 / 입원 NO / 의료신기술

유로리프트(Urolift)
전립선비대증 획기적인 시술법

그동안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약물치료로 시작하다 다른 합병증이 생기고, 약에 반응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이용하여 전선미아나 척추마취를 해야하여 입원기간도 3~7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유로리프트 시술은 극소마취하에 방광내시경을 통해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결찰사를 이용해 당겨주어, 요도를 넓여주는 시술입니다.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복원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룬 라식/라섹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본검진, 백내장, 녹내장, A.S.T.검사, 초음파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검사
25만원 → 20만원
- 백내장 수술 (단안 : 근시 + 원시 + 백내장 동시교정)
150만원 → 109만원 (안 종합검진 포함, 진료비별도)
-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양안)
200만원 → 150만원 (안 종합검진 포함)
- 2030 라식/라섹
130만원 (DNA(10만원 상당), 안종합검진 포함)

※ 수술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안 라식/라섹은 당일 수술가능합니다.
※ 수술에 제한된 약국은 개인과달이며, 안종합검진 진료후 처방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 육아와 업무로 라식/라섹을 놓치셨다면...
20~30대 어린가지리후로 수술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영아를 위한 한 노인교정이 가능합니다.
- 안경과 돋보기를 불편한 경우
핵과 신물, 핵도분출을 돋보기를 통해 보아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 친구보다 노안이 빨리 온 경우
나도 모르게 눈의 노화현상을 개인에 드립니다.
- 백내장과 함께 노안이 올 경우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 [안종합검진]을 통하여 백내장과 노안도 개인에 할 수 있는 수술방법입니다.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비절개식 모발이식센터의 선두주자
“오직 비절개 시술만을 고집합니다”

하루에 한분만 최선을 다하는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모낭 손상률 3%이하로 생착률 90%이상을 자랑합니다. 수술후 다음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MIT(삭발)	M2G(비삭발)
병원 정상가	7,700원	13,200원
휴람 할인가 (5%)	7,300원	12,500원
1모낭당 휴람 할인 비용	-400원	-700원

※ 상기 비용은 1모낭 당 가격입니다.

수술 전/후 모습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

[미국 모발이식 자격의 라이선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aram@haram.kr / www.huramkore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웃(망)

“그러므로 남을 망단(妄斷) 또는 판단(判斷)하는 사람이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망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니 망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You, therefore, have no excuse, you who pass judgment on someone else, for whatever you judge the other, you are condemning yourself, because you who pass judgment do the same thing.” - 로마서 2:1.



한국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3일 오전 9시 경 소사구 소사본동의 한 단독주택을 압수 수색해 작은 방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방치된 여중생 이모 (사건당시 13세)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양의 친아버지 이용봉(48세)과 계모 백모(41세)씨를 현장에서 체포, 조사 중이다.

평소 이양을 폭행해 온 혐의로 백씨의 여동생 (39세)도 함께 체포됐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아버지 이용봉은 “계모 백씨와 함께 2015년 3월 17일, 5시간동안 가출했다가 귀가한 딸을 빗자루와 빨래건조용 쇠몽둥이로 폭행 - 이날 저녁 7시쯤 숨진 것을 발견했다” 고 경찰은 이 씨와 백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이용봉은 부친 원미구 소재 한 교회 담임목사이면서 신학대학교 겸임교수. 경찰에 의하면 이용봉 목사님은 국내 신학대학교 졸업 후 독일의 한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단다. 이용봉 목사·박사의 강의를 들은 한 학생은 “농담을 개그맨처럼 잘해 학생들이 좋아했다” 며 학교관계자도 “예의 바르고 선후배에게 잘해서 이런 일 (딸의 목숨을 빼앗은 폭행)을 했으리라 고 상상도 못했다” 고.

인근 주민에 의하면 이용봉 목사는 “아내 백씨의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은 여러 번 봤지만 자녀와 함께 있는 건 본 적이 없다” 며 “최근엔 집으로 맥주와 치킨을 시켜 먹는 걸 봤다” 고.

경찰에 의하면 숨진 지 11개월 된 이양의 방에는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악취를 지우려고 방 곳곳에 방향제와 습기 제거제를 놓아뒀었다” 고.

이용봉 목사는 2007년 이양의 친모가 암으로 사망하자 2009년 지금 아내 백씨와 재혼한

것. 아버지가 재혼하자 이씨와 친모 사이에 태어난 1남 2녀는 뿔뿔이 흩어진 것.

이양의 오빠(20세)는 2012년 가출했고 언니(18세)도 독일에 있는 이 목사 지인의 집에서 살고 있다.

이용봉 목사 내외는 “주(主)님이 딸을 살려 주실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딸의 시신을 방치했다” 지만 경찰은 이용봉 목사의 학력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낮단다.

딸이 숨진 뒤 보름이 지나서 사망신고 대신 가출신고를 한 거짓 행동에 대해선 “담임교사가 두 번씩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느냐” 는 성화에 딸의 사망 사실이 들통 날까 봐 두려워서 거짓 신고를 했단다.

딸을 자기 손으로 때려 죽이고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 예배인도하고 목사이면서 신학대학 강사로 이중생활에 혼신의 정력을 기울여온 이용봉 목사!

지난 주(1월 31일) 이용봉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앞에서 한 신문기자의 말.

“예배를 마친 이 목사님은 이주시개를 물고 식사를 끝냈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라가 된 딸의 시신을 둔 아버지 목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고.

이용봉 목사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말씀의 진리를 예누리해서는 절대로 안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책임’ 이라고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앞에 앉혀두고 “지난해엔 시도 교육청이 누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찬성해 놓고 왜 말을 바꾸느냐” 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석상에서.

박 대통령은 “박 시장께선 지난 해 시도지

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 며 “(교육감들이) 받을 돈은 다 받아 놓고 이제 와서 다 다고 또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선 어린이 집 선생님들과 엄마들은 무슨 죄냐” 고 말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속 그러면 앞으로 법을 바꿔서라도 (교부금 용도를 특정해) 누리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입을 다물었고 박 시장 발언에 반응을 묻자 박 대통령은 “(박 시장이) 늘 하시던 말씀인데요 뭐” 라며 웃었다.

웃망: 虛 | 허신 - 허망할 망. 두 글자가 합성됐다.

(1) 亡망: 殺也살야 - 죽일 망, 또는 楚己 | 龍且 且也초기신통차살야 - 업을 무

(2) 女: 婦人總稱부인총칭 - 여자여(녀).

두 글자의 뜻을 합해서 보면 여(女)자를 죽이거나 무시하는 뜻이 명백한 글자가 웃망이지만 성경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남을 웃망(망단)하는 것 자체가 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 자신을 정죄하거나 죄(罪) 받는 길을 가게 된다” 는 결과를 단정적으로 말한다.

이유는 성경(聖經)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배경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女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렇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The man said “Th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for she was taken out of man.”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y will become one flesh.” - 창세기 2:22-24.

바로 이 성경 진리에서 웃망처럼 “女를 망(亡)하게 또는 무시(無視)하는 자체” 가 실수와 잘못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께 죄(罪)와 악(惡)을 범한다는 것.

특히 여성 비하(卑下)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은 동양문화권에선 더욱 웃의 풍조가 심하다.

뿐만 아니라 남녀 사이에도 벽이 있어서 친분에도 한계를 둘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남녀 간의 교제에도 엄격한 한계를 그고 있다.

특히 사랑(愛情)을 주제로 하는 교회 문화권에서도 남녀의 한계는 불명확해서 망설이는 현상을 심심치 않게 접한다.

까닭은 많은 신앙인들이 女에 대한 명료한 한계를 갖지 못해서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에서 女의 글자 뜻처럼 “하나님(-)과 남자(L) 여자(J), 세 획이 여자” 를 구성하고 있는 뜻.

쉽게 말하면 “남녀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령(聖靈)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에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天國)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king who prepared the wedding banquet for His son,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 - 마태복음 22:2, 14.

이 천국 혼인 잔치에 초대 받았는지, 받았다면 분명히 택함을 받았는지?



EMF Electro Magnetic Field Certificate 인증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EMF 인증을 받은 '아랫목 매트'는 '전자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de in Korea

모든 잠자리에서 달게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바쁜 하루도 거뜬합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들 말합니다. 아랫목 은수매트와 함께 포근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34년 기술력

아랫목 은수 매트

달게 주무셨습니까?



싱글사이즈



퀸사이즈

(100cm x 200cm)
\$375

(145cm x 200cm)
\$435

확실한 무소음 보증

- 자기도 원단 사용으로 고급스런 디자인과

-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으로 안전 사고 방지

01 동종기관 인증으로 전자파 걱정 특!

02 모터가 없으니 소음 걱정 특!

03 7중 안전 제어 시스템으로 안전 걱정 특!

04 스펀지 거품 방적으로 전기세 걱정 특!

Free delivery 무료배송 (하와이, 알래스카는 \$90추가)

경제 전문지가 운영하는 믿음 주는 홈쇼핑

헤럴드 이마트
Herald eMart

주문 전화 **213.487.0125**
3325 Wilshire Blvd. #628 LA, CA 90010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17) 폭락하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폭이 새해 들어 더욱 커졌지만 사실 지난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일반 투자자는 질문합니다. “주식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가?” 혹은 “주식시장이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회복하고 올라갈 것인가?” 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뉴욕 타임스 신문과 베스폭 회사(New York Time & Bespoke Investment Group)가 합동하여 2016년 주식전망에 관한 보고서(161페이지)를 발표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간단한 결론을 내려 봅니다.

“2016년 주식시장 연말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이에 따라 어떻게 투자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건대 바보와 같은 짓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2016년에 두 자릿수로 수익률이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두 자리 숫자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표현이다.”

투자 전문가인 하워드 막스(Howard Marks, Oaktree Capital Management)도 최근 경제신문과의 대담에서 주식시장 예측에 관하여 비슷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모른다. 혹시 누군가가 안다고 말하면 그 자신에게 웃기는 일이다.”

오랜 세월 동안 꿈에 그리던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는 것이 두렵습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 터블런스(turbulence)가 있기에 비행기가 요동치는 것이 매우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비슷합니다. 주식시장은 틀림없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일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행기 여행과는 다르게 주식시장의 위험

성은 투자자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하는 방법은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는 주식시장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 즉 본인에게 맞추어서 형성된 포트폴리오를 말합니다.

제대로 형성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투자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투자하는 목적이 은퇴자금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은퇴 전과 은퇴 후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는 몫이 달라집니다. 이미 은퇴했다면 젊은 사람처럼 주식에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 위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70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40%만을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과 현금에 투자했다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받는 영향은 40%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생활비는 위험성이 적은 채권과 현금을 이용합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투자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외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주식에서도 대기업 회사, 작은 회사, 부동산, 등 어느 종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를 해야 합니다.

최근 투자자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 (Investors snub money managers for market clones, 1-13-2016, WSJ) 내용 한 구절입니다. <2015년 투자자는 뮤추얼 펀드에서 \$207.3 billion을 찾아서 \$413.8 billion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 이러한 투자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회사는 인덱스 펀드를 처음 만든 벵가드(Vanguard) 그룹이다.> 오랫동안 인덱스 펀드를 추천한 이유는 투자경비도 저렴하고 투자 위험성도 적고 수익률도 뮤추얼 펀드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락하는 주식시장은 오히려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 기회입니다. 가격이 저렴할 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형성된 포트폴리오는 주식시장을 예측할 필요 없이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백성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Security Deposits

집을 빌릴 때,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요구하고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얼마까지 요청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터무니 없는 청소비나 수리비를 Security Deposit 에서 차감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동산에도 최근 관련 문제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Security Deposit에 대한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스톤에 경우, Security Deposit에 대해 Security Deposit Law라는 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Security Deposit은 한 달 렌트비는 허용됩니다. Security Deposit을 올리고자 한다면 입주자와 주인과에 mutual agreement이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애원권이 있는 경우, 애원권을 이유로 추가 Security Deposit요구하기도 합니다. 요구하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그 비용을 포함한 Security Deposit이 한 달 렌트비의 3배 이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입주 시 지불한 서류상 “Security Deposit” 뿐만 아니라 임대를 보증 받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모든 금액이 법적으로 포함

되기 때문에 만약 집 주인이 입주하면서 두 세 달치를 먼저 내도록 요구한다면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Credit이 없다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 기숙사가 아닌 아파트로 들어 갈 경우는 다릅니다. 전적으로 입주자와 주인이 결정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 중 많은 경우는 Security Deposit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Security Deposit은 반드시 주인이 세입자에 social number를 사용하여 Beneficiary, 새로운 구좌에 보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집 주인은 Security Deposit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집이 손상되어 수리비를 Security Deposit에서 제하는 경우는 입주계약서에서 정했던 내용을 따라 결정하며 집주인은 청소비 등 Security Deposit에서 빠진 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입주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수리비가 Security Deposit이상이 되어 집주인이 손해를 보았다면 집주인은 손해 비용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Security Deposit을 돌려줄 때 개인적으로 전달하거나 등기(registered/certified mail)로 전달하여 입주자가

확실히 받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 주인이 30일 내에 Security Deposit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주인이 수리비로 제한 금액에 대해 이전 입주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여 입주자가 승소를 하면 법정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비와 법정 소송비를 포함한 손해액을 입주자가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집을 비운 경우, 30일이 시작하는 시점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순간이 아닌 원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나 해당 집이 재임대되는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서 30일로 계산됩니다.

만약 지난 번 큰 눈 폭동과 같은 자연 재해나 화재로 피신 명령이 떨어져서 입주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집을 비우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신 명령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면 집주인은 3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Security Deposit을 가져갈 수 있음을 통보하고 5일 내에 Security Deposit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Security Deposit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집주

인은 우선 다시 은행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가 Security Deposit을 찾아갔는데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입주하는 경우 입주자는 Security Deposit을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법적 권리와 책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하려면 **신고·신청**부터!

인터넷으로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신청하세요.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

신고·신청 대상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1997. 4. 14. 이전 출생자)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재외선거인**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국민

신고·신청 방법

- 인터넷(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ok.nec.go.kr**
- 공관방문, 순회집수, 우편, 전자우편

신고·신청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 투표기간 2016. 3. 30. ~ 4. 4. (공관별부 기간중 6일 이내)
인터넷 검색창에 **재외선거** 를 쳐주세요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6년 2월 첫째주)

● H-1B 연장 지체 (Delays for H-1B Extensions)

2월3일 현재 H-1B 연장 신청서의 심사가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일반 연장 신청서들의 심사는 통상적으로 3-5개월 정도 걸렸지만 지난해부터 연장 신청서 심사가 심각할 수준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체는 두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FY2017) H-1B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늘어난 연장 신청서의 수, 특히 급행 신청의 수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늘어난 신청서의 수가 이번 지체의 주된 영향이라고 이민국은 발표했습니다.

특히, 심사 기간이 거의 240일에 육박하는 경우엔 자칫 H-1B 신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H의 경우 연장 신청서가 제출되면 자동으로 신청자의 H 신분이 240일간 한시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240일 안에 심사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신분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장 신청이 적어도 7개월 이상 계류 중인 분들은 서둘러 이민국에 이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통계로 본 작년 H-1B

작년 H-1B 신청 (FY2016) 과 관련 몇가지 통계가 나왔습니다. H-1B 신청을 위해 사전에 노동부로 부터 받아야 할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이 신청된 숫자를 보면 작년에 어디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 H-1B 가 신청됐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Computer Systems Analysts 와 Software Developer 라는 직종 (Occupation) 이 각각 28% 로 전체 직종 중 절반을 넘었습니다. State 별로는 California 에서 48,819 개가 신청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Texas 와 New York 이 각각 24,532 개와 17,972 개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Massachusetts 는 8,395 개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직장 (Employer) 별로는 Cognizant Technology Solutions U.S. Corporation 이 총 30,657 개를 신청했으며 Deloitte Consulting, LLP 가 19,705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Apple, Inc. 가 총 18,744 개를 Amazon 이 3,921개 그리고 Microsoft 가 3,270 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무비자 방문 개정 (Changes to the VWP (visa waiver program))

작년(2015년) 12월18일 무비자 방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한국국적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늦어도 2016년 4월1일까지는 예외없이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셔야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허가 작업인 ESTA 에 문제가 없었으면 전자여권이 아니더라도 입국을 허가했었습니다.

- 2011년 3월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또는 시리아를 방문했던 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무비자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미 ESTA 를 승인 받은 자들 중 위의 국가(들) 을 2011년 3월1일 이후에 방문한 자들에게는 ESTA 가 취소 됐다는 통지가 이메일을 통해 1월말까지는 전달됩니다.

이러한 이메일은 ESTA 를 신청할 당시 기입했던 이메일 주소로 통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무비자 방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 ESTA 취소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미국 방문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위의 이유로 ESTA 가 취소 됐더라도 방문 비자나 다른 비자가 아직 유효하

다면 그 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토안부부는 ESTA 취소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입국을 불허한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의 국가(들)을 2011년 3월 이후 방문하신 분들은 무비자 방문을 계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위 국가(들)에 대한 방문이 자신의 국적국의 군대의 일원 또는 정부 업무 수행인 경우는 무비자 방문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주간 법률 칼럼 - [이민법] H-1B 접수 준비에 관하여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금년 4월 1일 H-1B 접수 시작에 대비하여 H-1B 접수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올 해 H-1B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H-1B 와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1B는 미국 기업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주인 미국기업이 해당 직원을 위해 신청하는 신분입니다. H-1B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일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국인 유학생이 학생비자 (F-1)로 미국에 있는 학부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을 하고 미국에 있는 기업의 IT직원으로 취직을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고용주는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H-1B 를 신청하게 됩니다.

H-1B는 3년 동안 유효하며 한 번 연장이 가능하므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등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H-1B만으로 최대 6년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가 허

용하는 6년의 기간을 소진하고 다시 H-1B를 신청 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머물러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L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L비자로 체류한 기간이 H-1B 가 허용하는 6년에 포함되어 계산되어 실제 H-1B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를 해야 합니다.

H-1B 신청 준비를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H-1B는 석사 이상 쿼터가 20,000개, 일반 쿼터가 65,000개로 제한되어 있고, 쿼터가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3년간을 돌아보면, 학사와 석사 이상 소지자의 H-1B 신청이 모두 마감되어 이후에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H-1B비자 스폰서를 끼여이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금년 역시 바로 쿼터가 소진 되어 추첨을 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H-1B 승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준비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H-1B 신청 서류에는 H-1B를 스폰서 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대한 정보,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었

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해당 미국 기업이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법적으로 요구된 수준의 임금 ("prevailing wage") 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서류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 서류의 세심한 준비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H-1B 승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변호사의 경험과 미국 기업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 해 H-1B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능하면 빨리서류 준비를 시작하여 접수가 시작되는 4월1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 내 학사나 석사학위가 필요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H-1B는 미국 내 학사 이상의 학력이나 그와 동일한 수준의 외국 학력, 혹은 학력에 상응하는 경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로도 신청 자격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분야에 경력이나 경험이 많은 경우, 학사가 없더라도 경력으로 학력 신청 조건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가 미국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는지, 경력으로 학사 학위를 대체하고

자 한다면 가지고 계신 경력으로 충분한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H-1B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금년 10월 1일부터 H-1B 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OPT신분으로 일하고 있었고 OPT가 10월 1일 이전에 끝나더라도 H-1B를 제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H-1B 신청에 대한 본 칼럼 내용이 올 해 H-1B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학생으로 졸업 후 계획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H-1B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0%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톤, 렌드로맷(La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렌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렌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턴 북쪽 일식당 풀 비어/와인 리커 면허증, 연매상 \$600,000 매매가 \$200,000
 드롭 보스턴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턴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턴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턴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턴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턴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보스턴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턴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턴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턴 북쪽 렌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턴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턴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턴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렌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턴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 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겨울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기간: 12월18(토)~31(목) 12일간
(12월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휴강)

- SAT I class(old, new)
-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 실력있는 강사진
- 실전문제 풀이 중심(old)
-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new)
- SAT II Subject test class
Math IC, Chemistry, Biology, Physics
- AP 전과목 및 선행학습을 위한
개인수업

2017년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모집기간: 2016년 2월말까지
-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컨설팅
- 체계적인 계획에 맞춘 빈틈없는 입처리

각종 경시대회 준비

수학경시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